

原三國時代の 文化*

차 례

- 時代概觀
- 生活遺蹟
- 墓制
- 土器

- 鐵製武器
- 農·工具
- 裝身具

* 이 글은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1990년도 춘계 연합전시회(“원삼국시대 문물전”) 도록에 수록된 것을 수정한 것임

時代概觀

윤 용 진 (경북대학교 박물관장)

「原三國時代」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0年代 初였다. 그 후, 原三國時代라는 用語의 時期規定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紀元前 1世紀에서 紀元後 3世紀頃까지의 時期에 해당하는 概念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 時期는 漢文化의 東進으로 韓半島에서 鐵文化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또 본격적인 鐵의 사용으로 생활용품의 生産과 人口가 급격하게 증가되며, 社會도 階級社會로의 展開가 촉진되던 때이다. 그리고 文獻에서는 이 時代를 三韓時代·部族國家時代·城邑國家時代 등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考古學에서 原三國時代라는 用語가 사용되기 전에는 金海式土器를 標識的인 遺物로 하는 初期鐵器時代, 金海期 또는 熊川文化期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在來의 傳統土器인 無文土器와 區分되고 金海式土器인 打捺文硬質土器와도 다른 瓦質土器의 존재를 발견하고 瓦質土器를 標識으로 하는 時期가 있다고 主唱하게 되었는데, 그 時期를 原三國時代라 부르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이 時期의 標識的인 土器에 대한 論難이 해결된 것은 아니나 瓦質土器의 存在가 原三國時代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점만은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이 時期라고 인정되는 漢江以南의 遺蹟은 義昌郡 茶戶里遺蹟, 三千浦市 勒島遺蹟, 釜山 老圃洞遺蹟, 金海 府院洞遺蹟, 大邱 八達洞·鳳舞洞·達城最下層·半夜月遺蹟, 慶州 朝陽洞遺蹟, 中原郡 紙洞遺蹟, 春川市 中島遺蹟, 加平郡 梨谷里遺蹟, 南原 細田里遺蹟, 海南 郡谷里遺蹟 등으로, 이들 유적은 貝塚·住居址·墳墓로 크게 분류된다.

이 時期에 代表되는 墓制는 土壙(木棺 또는 木槨)墓이다. 이 墓形은 三國時代의 古墳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盛土하는 封墳을 갖추지 않고, 副葬遺物에 있어서 본격적인 武器를 埋納하지 않으며, 土器는 새로운 形質인 瓦質土器를 副葬한다. 이러한 土壙(木棺·木槨)墓는 外來的인 墓制로 생각된다. 中國製의 遺物이 副葬되는 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中國文物의 影響이 컸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瓦質土器의 胎土·燒成·製作技法 그리고 器形이 보여주는 것처럼 獨自的인 文化도 급격하게 발달된 것으로 여겨진다.

墳墓의 副葬品에 본격적인 武器가 없다는 점, 中國製의 青銅車馬具, 銅鏡, 銅鐸 그리고 각종 瓦質土器의 존재를 통해서 추측되어지는 것은 이 時代가 아직 巫覡的인 信仰의 社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거대한 封墳이 築造되지 않았다는 데서 古代國家나 專制王權이 形成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文獻에 의하면 紀元前 3世紀에 秦이 中國을 統一하고 漢으로 이어지면서 그 주변지역에 政治的·文化的으로 큰 影響을 준다. 韓半島의 古朝鮮도 이러한 中國의 힘에 의해 큰 격동을 겪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中國의 影響을 받으면서 獨自的인 民族 文化를 形成하게 되고 3世紀頃에는 高句麗가 古代國家를 形成하고 이어서 百濟·新羅·伽倻가 차례로 古代國家를 형성하여 政治的으로 中國의 影響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原三國時代는 政治·文化的으로 中國의 影響을 받으면서 한편 民族의 獨自的인 文化를 形成하여, 三國의 國家形成에 이르는 과도기라 할 수 있겠다.

生活遺蹟

안 재 호(부산대 박물관)

原三國時代의 生活遺蹟은 中部地方에서는 소위 中島式無文土器가 출토되는 中島·柯坪里·屯內·西屯洞·馬場里·荷川里 등의 住居址 유적이 있고, 嶺南地方의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金海·梁山·東萊·固城·昌原 等地의 金海期 또는 態川期 貝塚遺蹟이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湖南의 洛水里·大谷里 유적에서 대규모의 集落이 조사되었고, 居昌 大也里 유적에서도 住居址가 일부 확인되어 原三國時代의 자료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먼저 原三國時代의 住居址 유적으로서 편년되는 中島 住居址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소위 金海式土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原三國時代라는 用語는 紀元1世紀부터 3世紀까지의 약 300년간을 말하며, 그 文化的 特色은 靑銅器의 소멸, 鐵器 보급의 확대, 金海式土器의 생산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¹⁾ 여기에서의 金海式土器는 無文土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질의 土器를 지칭하는데, 土器의 成形 단계는 打捺技法이 채용되며, 無文土器와 같이 酸化焰에서 燒成되었으나 硬質인 赤褐色土器와 1,000°C 이상에서 燒成된 灰青色의 陶質土器, 또 灰色·黑色의 瓦質土器를 포괄하는 總稱이었다.

한편, 近年에 嶺南地方에서 활발하게 墳墓가 조사되면서 「瓦質土器」라는 새로운 토기의 개념이 설정되고 그 시기가 1~3世紀이며, 金海期貝塚 유적의 陶質土器를 포함한 赤褐色土器는 대체로 4~5世紀가 그 中心年代이므로 金海式土器의 1~3世紀說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²⁾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金海期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그 개념 문제는 남아 있으나, 原三國時代 또는 三韓時代로 불리는 1~3世紀의 표식적인 土器가 瓦質土器라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春川市 中島住居址³⁾에서 출토된 소위 金海式土器는 打捺文이 시문된 瓦質土器 또는 赤褐色土器로서 中島式無文土器와 鐵器가 共伴되고 있다. 그 中心年代는 대체적으로 紀元1世紀代로 편년하고 있으나, 金海式土器의 출현이 樂浪郡 설치 이후일 것이라는 것과 도끼날形 鐵鏃의 年代로써 그 上限을 紀元前 2世紀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 또, 茶戶里 유적에서도 瓦質土器와 無文土器가 共伴되어 출토되는데 그 年代는 紀元前 1世紀 後半이다.⁵⁾ 이렇게 볼때 瓦質土器의 出現을 金海式土器의 出現으로 본다면 原三國時代의 時期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고, 生活유적인 中部地方의 中島계통의 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지만 茶戶里墳墓에서는 靑銅器가 鐵器와 함께 다양한 종류가 伴出되고 있으므로 原三國時代의 특색에서 靑銅器의 소멸은 그 개념으로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慶州 朝陽洞墳墓 유적의 成果에서 나타나듯이 紀元1世紀가 되면서 墳墓內의 埋納品은 無文土器에서 순수 瓦質土器로 바뀌고 靑銅器도 거의 소멸하는 양상⁶⁾을 보이고 있으므로 紀元 개시 전후의 시대적 양상은 金海式土器의 生産 개시가 아니고 瓦質土器가 中國의 漢文化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한반도 南部化된 형태로 자리잡는 반면 無文土器의 기능적 역할을 赤褐色연질토기가 이어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原三國時代의 특성을 無文土器·靑銅器文化의 소멸, 韓式化된 瓦質土器의 등장, 연질토기의 확립 그리고, 철기 보급의 일반화 등을

들 수 있고 그 年代는 기존의 1世紀~3世紀로 두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中島유적과 같이 無文土器와 소위 金海式土器가 共伴되는 中部地方의 諸유적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原三國時代의 해당 유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中島유적 유형의 文化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中部地方에만 分布하는 地域的 특징을 가지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자료 비교가 生活用과 埋納用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유물을 비교한데서 기인하는 오류인지는 앞으로의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욱 더 명확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中島, 柯坪里, 屯內, 西屯洞, 馬場里, 梨谷里, 荷川里 등의 住居址 유적은 靑銅器時代 말기에 속하며 原三國時代의 직전 단계에 놓여 있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原三國時代의 生活유적으로서 이들 유적을 제외하면 3世紀의 貝塚과 주거지 유적밖에 없는데 原三國時代의 초기 모습은 中部地方에 分布하고 있는 上記의 유적을 살펴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中島式無文土器를 伴出하는 住居址遺蹟은 中部地方에만 알려져 있다.

住居址가 설치된 自然조건에서 河岸 또는 海岸의 평탄한 沙質土에 형성된 유적은 中島, 馬場里,⁷⁾ 西屯洞,⁸⁾ 柯坪里,⁹⁾ 屯內里,¹⁰⁾ 荷川里¹¹⁾ 주거 유적이 있고, 丘陵에 형성된 유적으로는 西屯洞 유적 뿐이다. 조사된 住居址는 각 유적에서 3棟 以內的 규모만이 확인되고 있다.

住居址의 形態는 대부분이 方形 또는 長方形을 띠는데 梨谷里 유적의 住居址 1棟은 直徑 5m의 圓形竪穴住居址이다. 이 住居址는 기둥구멍과 상태는 不良하나 2個의 爐址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中原 荷川里 D地區의 3棟의 住居址 중에서 2號住居址도 있는데, 直徑은 4m이고 기둥구멍과 爐址는 없다. 이 住居址는 抹角 長方形인 1·3號住居址보다는 면적이 좁으며, 出入口 시설이 없어서 生活住居址가 아니라 창고와 같은 부속 시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圓形의 住居址는 유적의 個別的 특성에 따라 住居址로도 또는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水原 西屯洞유적의 住居址는 한 변이 4m전후의 方形, 長方形竪穴住居址인데, 벽면과 중앙에서 기둥구멍이 나타나고 丁字狀의 턴널형 爐址¹²⁾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턴널형 爐址는 中原 荷川里 F地區 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 야외 爐址로 使用된 것이다.

中島, 馬場里, 西屯洞, 柯坪里, 屯內里, 荷川里D·F地區의 住居址는 그 형태와 住居위치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

住居址의 平面 형태는 長方形과 方形인데, 抹角의 것도 있다. 方形住居址는 4~6m가 한변을 이루고 있는 반면 長方形은 규모가 더욱 크다. 즉, 中原 荷川里F地區의 1號住居址는 폭 8.3m, 길이 10.5m의 大形인데, 한변이 5.7m인 2號住居址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

유물도 農具, 工具, 武具 등 많은 量의 鐵器가 出土되고 있어서 方形住居址와는 뚜렷이 區別되고 있다. 또, 橫城郡 屯內1號住居址는 폭 11m, 길이 14m의 大形住居址인데, 그 内部에는 石器와 土器의 製作 場所가 있고, 土器을 圓形狀으로 지하에 묻어 食糧을 저장한 광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鐵器도 12點이 出土되었다. 이러한 大形의 長方形住居址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살고 있었거나, 또는 倉庫, 工房地와 같은 生産, 저장의 기능을 지닌 住居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大形과, 한 家族이 生活하는 小形 住居址의 分布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각 유적들이 1:1 또는 1:2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각 유적의 조사 범위가 매우 좁은 一部에 지나지 않으므로 全體的인 비율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前記한 6個의 유적을 종합해 볼 때, 住居址의 機能的 또는 身分의 차이는 住居址의 규모와 형태에 의해 區分할 수 있고, 大形 또는 長方形, 圓形의 住居址를 中心으로 몇 棟의 住居用 가옥이 모여 하나의 集團을 형성한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런데, 각 유적에서 住居址의 形態·構成은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柯坪里 C地區유적은 小形과 大形の 方形住居址이고, 荷川里 D地區는 長方形과 小形の 圓形住居址이며, 同 F地區는 小形の 方形과 大形の 長方形住居址, 또 屯內住居址는 小形과 大形の 長方形住居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들 住居址의 구조에서의 共通點은 出入口와 爐址를 들 수 있다.

出入口는 住居址 短壁의 가운데에서 長方形에 가까운 形態로 突出하고 있으며, 폭이 1m내외이고 길이는 1~2m의 크기로 바닥이 경사져서 올라간다. 爐址는 敷石形¹³⁾인데 住居址의 長軸線上에 위치하며 中央에서 出入口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설치되어 있다. 爐址 內의 바람막이 돌이라고 하는 板石은 出入口의 반대 壁面쪽으로 세워져 나타나고 있다. 柱穴은 대체로 검출되지 않았는데 住居址 바닥에 직접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出土遺物은 無文土器로서는 底部의 內面이 편평한 外反口緣壺·內彎口緣甕·蓋가 代表的이고, 소위 金海式土器로서는 格子 또는 繩文打捺文이 施文된 圓底短頸壺·平底甕과 壺·시루형 土器 등이 있는데 瓦質과 赤褐色軟質土器 들이다. 鐵器는 武具類보다는 生産用具가 훨씬 많이 出土되고 있다.

이상에서 西屯洞住居址를 제외한 諸遺蹟은 위치환경, 住居의 구조와 형태, 遺物 등이 넓은 地域에 걸쳐 齊一性을 보이고 있다. 集落의 構造와 生活의 樣式도 同一한 類型일 것으로 생각된다.

原三國時代의 住居遺蹟으로서 늦은 時期(3~4世紀)의 것으로는 金海 府院洞C地區¹⁴⁾가 알려져 있고, 최근 住岩덤과 陝川덤 水沒地域의 발굴 조사로써 洛水里,¹⁵⁾ 大谷里,¹⁶⁾ 大也里¹⁷⁾ 遺蹟이 보고되었다.

洛水里遺蹟은 구릉의 稜線部에 18棟의 住居址가 설치되었는데, 住居址들은 2列을 이루며 爪形으로 배열되어 있다. 住居址는 抹角의 長方形을 띠는데, 폭과 길이의 비율이 5:6 또는 5:7 정도이다. 住居址의 면적으로써 大·中·小形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大形の 경우는 20㎡以上이고, 小形은 10㎡미만의 규모로 각각 4棟, 10棟, 4棟으로 나누어진다. 大形住居址에서 19號住居址를 제외한 모든 住居址는 柱穴과 屋內 저장공이 있고 저장공이 없는 9-1號住居址의 경우는 넓은 공간의 段시설이 있다. 小形の 住居址에서는 아무런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倉庫와 같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爐址는 5棟의 住居址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형태가 명확히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壁面쪽에 다소 치우쳐 燒土덩이와 함께 냇돌 또는 괴석들로 구조물을 이룬 것 같은데, 後述할 居昌 大也里住居址에서 보이는 爐址와 같은 형태로 생각된다.

住居址 内の 溝는 3棟에서 검출되었다. 이 溝는 壁面을 따라 部分的으로 설치되었다. 洛水里遺蹟의 年代는 3世紀 前半에서 4世紀 中·後半으로 추정¹⁸⁾하고 있다. 그러나, 出土유물이 居昌 大也里유적과 유사한 것이 많고, 湖南地方의 土壙墓에서 출토되는 陶質의 繩蓆文圓底短頸壺와 같은 기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며, 瓦質 또는 軟質土器類만이 出土되는 점으로 보아 대략 3世紀代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고, 각 住居址의 유물이 거의 同一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은 그 형성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3-1·2號와 10-1·2號가 각각 중복되어 있으나 3-2號와 10-2號는 3-1號, 10-1號가 폐기된 후 곧 바로 개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本 洛水里聚落을 이루는 住居址간의 수는 16棟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報告書는, 聚落内の 경제적 세대관계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1基의 倉庫를, 단독의 저장시설을 갖춘 1棟의 住居址를 포함한 3~6個의 家口가 共有하여 구성되었다고 보고 洛水里유적은 3個의 단위 세대가 이룬 共同體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住居址의 규모와 그 특징에서 볼 때 共同倉庫의 기능을 지닌 小形住居址가 4棟, 大形住居址가 4棟, 中形住居址가 8棟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며, 大形과 小形 각 1棟과 中形住居址 2棟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전체의 共同體는 4個의 단위 세대로써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大谷里 道弄유적은 河岸의 모래층에 형성된 大規模의 聚落地로서 서로 수백m 떨어진 2個 地域을 서울大博物館과 國立光州博物館이 각각 發掘 조사하였다. 발굴은 聚落地의 全面을 완전히 조사한 것이 아니고 聚落의 部分에 그치고 있다.

서울大博物館이 조사한 地域에서는 25棟의 原三國時代 住居址가 확인되었다.

住居址의 平面 형태는 抹角長方形인데 약간 方形에 가까운 것도 있다. 그 폭과 길이의 비율은 5:6전후이다. 住居址의 규모는 20㎡이상인 것이 3棟이고, 가장 작은 6㎡미만의 小形住居址는 2棟뿐이다. 그외의 20棟에 달하는 中形住居址는 10㎡~19㎡로 산출된다. 住居址內에 단독의 저장공이 설치된 住居址는 中形住居址 1棟 뿐이며, 柱穴도 2棟의 中形住居址에서만 확인되었을 뿐 대부분 住居址의 기둥은 바닥에 그대로 세워진 듯하다. 爐址의 형태는 洛水里의 것과 같은 양상으로 노출되는데, 壁面에 붙여서 설치하지 않고 약간 中央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7棟의 中形住居址와 1棟의 小形住居址에서 확인되었다.

光州博物館의 發掘地는 서울大博物館의 현장보다 江 아래쪽에 위치하며, 原三國時代 26棟, 三國時代 11棟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三國時代의 11棟 住居址에서 출토된 유물은 3世紀로 편년해도 좋은 것 같다. 이의 검토를 위해서 비교적 이 時期의 자료가 풍부한 嶺南地方의 墳墓 출토품과 大也里住居址 유물 등을 대비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道弄14-2號住居址에서는 無莖式鐵鏃 5點이 檢出되었다. 이 鐵鏃은 鏃身이 긴 형태가 4點, 짧은 것이 1點인데, 同形의 鐵鏃은 釜山 老圃洞遺蹟·金海양동리고분과 大也里 12號住居址에서 출토되었다. 老圃洞과 양동리고분에서는 모두 3世紀로 편년되는 土器와 共伴되었으며¹⁹⁾ 鏃身の 側線이 曲線인 것은 無莖式鐵鏃에서도 다소 늦은 형태로서 4世紀初가 그 下限이다.²⁰⁾ 그러므로 道

弄14-2號住居址는 3世紀代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道弄14-2號住居址에는 鐵鏃외에도 어깨 부분이 그다지 內傾하지 않은 格子打捺文長胴甕도 출토되었다. 이 器形과 同形이 역시 大也里12號住居址에 있다. 이 大也里 12號에는 거의 直立狀의 口緣을 가진 把手附시루도 共伴하고 있다. 道弄7-2號住居址에도 이와 유사한 長胴甕과 把手附시루가 출토되었다.

道弄7-1號, 50號, 51號住居址에는 圓底短頸壺가 出土되었는데 繩文 또는 格子文이 打捺되고, 口緣은 外傾하며 胴部는 橫타원형을 띠고 있다. 이러한 圓底短頸壺의 특징은 新式瓦質土器단계의 壺에서 볼 수 있는 一般的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 역시 3世紀代의 유물로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三國時代로 편년시켰던 住居址들은 모두 原三國時代의 유구로 생각할 수 있다.

光州博物館地域의 道弄住居址는 平面 형태가 方形에 가까운 것도 3棟이 있지만 6棟의 타원형을 제외하면 모두 抹角長方形을 띤다.

住居址의 면적은 몇 개의 群集으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抹角長方形 住居址에서 最大는 47.9㎡이고, 最小는 7.8㎡이다.

住居址가 서로 重復된 경우는 2個所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住居址의 규모가 월등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40號, 47號, 51號의 중복에서는 각각 그 면적은 9.3㎡, 29.0㎡, 17.9㎡이고, 24號, 29-1號, 30號의 경우는 26㎡, 12.1㎡, 9.9㎡이다. 여기에서 29-1號와 30號 주거지는 그 면적에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개축한 것으로 보아도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고려되는 重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他遺蹟과는 달리 住居址의 면적에서 2~3個의 群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각기 다른 2個 時期의 聚落이 混在함으로써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住居址 内の 시설물로는 爐址일 것으로 추정되는 燒土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1個所의 燒土가 住居址의 壁面에 붙어 있는 경우와 약간의 사이를 두고 설치된 경우가 있다. 전자는 抹角長方形住居址 9棟에서 검출되었고, 후자는 抹角長方形住居址 8棟, 타원형住居址 2棟에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爐址의 位置로서도 時期區分이 가능한지는 유물의 면밀한 時間的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각 住居址 出土 유물에서 약간의 器形的 差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本紙面에서는 장황히 論할 여지가 없어 後日로 미룰 수 밖에 없다.)

住居址 내에서 爐址는 1個가 설치되는 것이 一般的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35號, 3號, 51號住居址에서는 예외적으로 2個所에서 燒土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住居址는 35號가 本 유적에서 最大形인 47.9㎡이고 3號와 51號住居址는 20㎡内外의 규모이다. 그런데 3號와 51號에서는 모두 內拍子가 1點씩 出土되었고, 3號에서는 粘土덩이와 土管이라는 특이한 유물도 검출되었다.

그래서, 3號와 51號住居址는 土器製作과 관련된 工房址로 추측되며, 35號住居址는 一般의 村落民의 가옥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에 속하는 住宅이거나, 集會所 또는 共同의 行사가 개최되던 가옥일 것이다.

居昌 大也里住居址群은 河岸의 冲積層에 형성되어 있다. 遺蹟의 일부분만 發掘되어 5棟의 原三國時代 住居址가 나타났는데, 住居址는 平面 형태가 타원형을 이루는 半堅穴式이다.

住居址의 規模는 長軸이 5.0~5.6m, 短軸이 3.4~4.3m 정도이다. 支柱穴은 堅穴마갈에서 6

個가 배치되고, 爐址는 진흙으로 다져만든 것인데 지금의 아궁이와 같은 형태를 이룬다. 이 爐址는 3棟의 住居址에서는 壁面에 붙어 있으나 12號住居址만은 약간 떨어져 설치되었다. 大谷里 道弄유적의 住居址에서도 이러한 2種類의 爐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大也里住居址에서는 兩者 사이에 時期差가 인정된다. 즉, 16號, 19號住居址의 爐址는 壁面에 接하여 있는데, 出土 遺物중에서 陶質製의 繩蓆文圓底短頸壺는 胴體部가 球形이다. 嶺南地方의 墳墓유적의 편년으로는 3世紀末~4世紀中葉에 위치하고 있다. 16號住居址의 長胴甕은 口緣이 거의 水平에 가깝게 벌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7號住居址에도 同形의 長胴甕이 陶質短頸壺와 共伴되고 있어서 7號, 16號, 19號住居址보다는 年代가 앞서며 3世紀後半쯤에 편년될 것이다. 결국 大也里住居址는 그 平面형태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3世紀에서 4世紀로 넘어가면서 爐址가 住居址壁面에 붙어 버리는 경향을 띤다.

金海 府院洞 C地區유적은 丘陵의 斜面에 3棟의 圓形, 橢圓形住居址가 조사되었다.

住居址의 규모는 圓形이 直徑 4m이고, 橢圓形은 長軸이 4.2m, 短軸이 2.7m이다. 爐址는 壁面에 붙어 있으며 주변을 돌로써 두른 것도 있다. 본 住居址에서 출토된 유물 중, 1號住居址의 赤褐色軟質인 長胴甕 1點은, 胴部는 大也里나 大谷里·洛水里의 甕과 닮았으나 口線이 <字狀으로 곧게 外傾하는 것이라든지 打捺技法이 단순히 繩文 또는 格子文이 아니고 매우 거친 平行打捺文 위에 木理調整으로 整面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胴體部의 형태라든지 C地區에서 출토된 爐形器臺, 高杯 등이 4世紀의 것이고 이것은 이 유적의 下限을 이루고 있으므로 본 府院洞住居址의 年代도 4世紀를 下限年代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原三國時代의 住居址는 1,2世紀의 狀況은 전혀 알 수 없고 3世紀의 聚落이라 하더라도 매우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각 단계별 住居址의 특징이라든가 聚落의 構造, 또 集團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年代와 地域性에 관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를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① 原三國時代의 住居址 형태의 변천은 初期에는 中島式住居址에서 볼 수 있는 方形을 主體로 하다가 3世紀에는 抹角長方形, 4世紀에 와서는 橢圓形이 가옥의 中心的 形態로 발전하는 것 같다. 물론 각 단계마다 大形 또는 小形의 특수한 기능을 지니는 住居址는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② 原三國時代 前 단계에 中島式住居址는 中部地方에 있어서 거의 定型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世紀의 住居址에서는 出入口 시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中島式住居址의 時間的 소멸의 결과인지 地理的 단절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居昌 大也里住居址에서 出土된 長胴甕, 鉢形의 把手附시루, 小形의 (把手附) 平底甕, 平底의 淺鉢 등은 製作 수법, 器形面에서 昇州 洛水里, 大谷里住居址의 出土品과 흡사하다. 이들과 同時期의 生活遺蹟인 金海 府院洞 C地區, 昌原 城山貝塚東區,²¹⁾ 固城 東外洞貝塚,²²⁾ 釜山 朝島貝塚²³⁾ 등의 瓦質土器와 赤褐色軟質土器는 底部가 圓底 또는 抹角平底가 主流를 이루고, 整面技法에 格子, 繩文, 平行文의 打捺외에 木理調整이 첨가되고 있다. 그리고 墳墓에서 빈번히

出土되는 爐形土器도 共伴된다. 이러한 遺物相은 梁山貝塚, 金海貝塚, 昌原 內洞貝塚, 熊川貝塚, 東萊貝塚 등의 慶南地方의 소위 金海期貝塚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그래서, 兩地域에 있어서 土器의 地域의 特色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世紀代에 있어서 馬韓地域과 弁韓地域의 土器 構成은 瓦質, 또는 赤褐色軟質土器의 短頸壺시루, 長胴甕, 小形甕(혹은 鉢), 淺鉢(盃)이 主種을 이루며, 居昌地方을 포함한 馬韓地域은 長胴甕과 短頸壺만은 圓底狀이고 其他의 種類는 平底를 띤다. 이에 對比하여 弁韓地域의 全器種은 圓底 또는 底部가 작은 抹角平底이고 목리정면기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종에 爐形土器가 첨가된다.

④ 居昌 大也里遺蹟의 住居址에서 爐址의 位置가 住居址 안쪽에서 壁面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大谷里 道弄住居址에서도 爐址의 위치에 따라 二類型으로 분류되는데, 兩者간의 時期差가 있는지, 또, 그것에 따라 聚落의 구조는 어떠한지는 今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慶南地方에 分布하는 金海期貝塚은 대체로 4世紀以後에 형성된 것인데 昌原 城山東區貝塚에서는 肩部에 斜格子文이 시문된 瓦質製의 爐形土器가 出土되어 3世紀代로 편년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金海期貝塚形成時期의 上限을 3世紀로 보고 中心年代는 4, 5世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金海期貝塚의 立地조건을 분석하여 이들 諸貝塚은 日常生活을 위한 遺蹟이 아니라 방어적 기능에 의해 형성된 日本의 高地性集落과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고 인접하여 있는 古墳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²⁴⁾가 발표되어 金海期貝塚의 年代와 性格이 보다 具體化 되었다고 생각된다.

〈註〉

- 1)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 2) 申敬澈, 「熊川文化期紀元前上限說再考」, 「釜大史學」4輯, 釜山大學校史學會, 1980.
- 3) 李健茂 外, 「中島 I」, 國立中央博物館, 1980.
池健吉·韓永熙 「中島 III」, 國立中央博物館, 1982.
- 4) 李健茂 外, 「新梅里遺蹟」, 「中島 II」, 國立中央博物館, 1981.
- 5) 李健茂·李榮勳 外,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第1輯, 韓國 考古美術研究所, 1989.
- 6) 崔鍾圭, 「慶州朝陽洞遺蹟發掘調查概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第35卷 8號, 1983.
- 7) 韓永熙, 「馬場里住居址出土遺物」, 「中島 III」, 國立中央博物館, 1982.
- 8) 林炳泰, 「水原西屯洞住居址發掘概報」, 「韓國考古學年報」9, 1981.
- 9) 白弘基, 「襄陽郡柯坪里住居址發掘調報告」(I), 江陵大學博物館, 1984.
- 10) 元永煥·崔福奎, 「屯內」, 江原大博物館, 1984.
- 11) 金秉模 外, 「中原荷川里D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댁 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I), 1984.
尹容鎮, 「中原荷川里F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댁 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I), 1984.
- 12) 韓永熙, 「住居生活」, 「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1983.

- 13) 韓永熙, 註 12)의 前揭文.
- 14) 沈奉謙,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1.
- 15) 崔夢龍 外, 「洛水里낙수住居址」, 「住岩덤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1989.
- 16) 崔夢龍 外, 「大谷里도릉住居址」, 「住岩덤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1989.
徐聲勳·成洛俊, 「大谷里도릉·한실住居址」, 「住岩덤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1989.
- 17) 林孝澤 外, 「大也里住居址 I」, 東義大學校博物館, 1988.
林孝澤 外, 「大也里住居址 II」, 東義大學校博物館, 1989.
- 18) 崔夢龍 外, 註 15)의 前揭文.
- 19)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尹炳鏞·宋桂鉉, 「釜山老圃洞遺蹟 II」, 1988.
韓永熙·金正完 外, 「김해양동리고분」, 문화재연구소, 1989.
- 20)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財) 韓日文化交流基金, 1986.
- 21) 韓炳三·鄭澄元, 「東區貝塚發掘調查報告」,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 文化財管理局, 1976.
- 22) 金東鎬, 「固城東外洞貝塚」, 「上老大島」, 東亞大學校博物館, 1984.
- 23)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 24) 崔鍾圭, 「金海期貝塚의 立地에 對해서」, 「古代研究」第2輯, 古代硏究會, 1989.

墓 制

김 정 완 (국립 진주박물관)

支石墓와 石棺墓의 양대 형태로 대표되어지던 우리나라 靑銅器時代의 墓制는 初期鐵器時代에 이르러 土壙墓, 甕棺墓 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여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原三國時代에 이른다.

原三國時代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高句麗 및 樂浪이 위치하여 積石塚, 木槨墳, 塼築墳 등의 墓制가 채택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初期鐵器時代로부터 계승·발전되어온 直葬土壙墓, 木棺墓, 木槨墓, 甕棺墓 및 石槨墓가 채용되고 있었다.

直葬土壙墓¹⁾는 土葬墓, 土壙墓라고도 부르는데 土壙을 판 뒤 棺이나 槨이 없이 바로 屍身을 매장하는 형태이다. 이는 新石器時代 이래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가장 단순한 형태의 葬法으로 그 築造時期도 副葬遺物에 의해서만 파악 가능할 뿐인데 副葬遺物 역시 거의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극히 빈약한 편이다. 原三國時代 전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三千浦市 勒島遺蹟의 土壙墓²⁾, 義昌茶戶里 9호분³⁾, 金海良洞里 19·24호분⁴⁾ 등이 있다.

木棺墓는 木槨墓와 함께 原三國時代의 대표적인 墓制로써 현재까지의 조사례로 보는 한 영남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청주에서도 조사된 바 있어⁵⁾ 앞으로의 調査進展에 따라 분포영역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立地는 대체로 山地에서 길게 뻗어져 내려온 낮은 臺地上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長軸方向은 東-西를 기본으로 한 것이 많고, 이 경우 頭向은 東쪽이다.

규모 및 内部構造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길이는 200~300cm, 너비는 150cm이하의 것이 많고 깊이는 50~200cm로 다양한 편인데, 깊은 것에서 낮은 것에서의 변화가 看取된다.⁶⁾ 封土의 형태 및 크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墓壙 내부의 토층함몰상태로 볼 때 원래는 낮은 封土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義昌茶戶里 1호분⁷⁾의 조사결과, 木棺을 비롯한 各種의 유기물질까지도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木棺墓의 내부구조를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로 대두되었다. 물론 이 墳墓는 완전한 原三國時代의 墳墓라기보다는 初期鐵器時代와 原三國時代를 잇는 과도적인 단계의 것이긴 하지만, 木棺墓 자체는 初期鐵器時代에 鐵器와 함께 이미 전래된 듯하고, 또 이 墳墓가 이보다 약간 늦은 단계의 原三國時代의 木棺墓들과도 기본구조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먼저 墓壙을 파고 바닥을 고른 후 木棺을 안치하기 전에 먼저 副葬遺物을 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墓壙의 중앙에 副葬坑을 마련하였는데 이 속에는 漆鞘鐵劍, 漆鞘銅劍, 銅鉞, 小銅鐸, 銅製帶具, 銅鐸, 漢式鏡, 五銖錢 등 전체 부장품 가운데 주요유물에 속하는 것들이 竹篋에 담겨진 채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副葬坑이 없는 墳墓에서는 이들 주요유물은 木棺 내에 꺼묻힌다. 그러나 이 副葬坑이 전체 木棺墓의 성격 및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위 墳墓에서는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한 木棺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굽은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관 윗쪽은 5각형, 아랫쪽은 사다리꼴로 내부를 파 내어 결합한 형태로, 상하결합은 긴 췌기모양의 축을 내어 관통시켰고 다시 끈으로써 묶게 되어 있었다.

副葬遺物로는 終末期의 無文土器와 古式瓦質土器, 細形銅劍, 銅鉞 등의 武器 및 鐵斧, 鐵鎌, 刀子 등의 農工具類 및 유리옥 등이 출토되고 漢式鏡, 五銖錢 등의 中國系 遺物이 공반되기도 한다. 그리고 上述한 茶戶里 1호분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豆를 비롯한 各種의 漆器용기와 붓, 부채, 소쿠리, 끈 및 밤, 씨앗, 나뭇잎 등의 유기물도 잔존하여 당시의 社會相 및 생활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副葬遺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木棺墓는 初期鐵器時代~原三國時代에 걸쳐 성행하던 墓制로, 경주 입실리, 영천 어은동 출토 일괄유물 등도 모두 이러한 종류의 木棺墓 출토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木棺墓의 등장은, 철기의 등장과 軌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변천관계 등은 중부지방에서 이 시기의 墳墓遺蹟이 조사되면 보다 확실하게 될 것이다.

木槨墓는 木棺墓에 뒤이어 原三國時代 후기에 나타나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三國時代 전반 기에도 널리 이용되는 墓制이다. 그러나 原三國時代의 木槨墓와 삼국시대의 木槨墓 사이에는 그 입지나 구조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原三國時代 木槨墓는 前記한 木棺墓와 거의 같이 산기슭 또는 구릉 말단부의 대지 위에 木棺墓와 混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축방향에 있어서는 木棺墓의 東西方向의 정형에서 벗어나, 대체로 그 지형의 等高線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크기는 길이 250~400cm, 너비 150~200cm, 깊이 40~70cm의 것이 가장 많으며 내부에 板材로 組立한 木槨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상세한 세부구조는 알 수 없다. 副葬坑 등은 물론 존재하지 않으나, 後期가 되면 별도의 副槨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副葬遺物은 木槨墓에 비해 크게 증대하는데, 그 배치에 있어서는 뚜렷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후기로 갈수록 정형화되어가는 것 같다. 金海 良洞里 木槨墳⁹⁾의 경우는 劍, 鉞, 斧 등의 鐵製유물 및 장신구 등은 槨內에 위치하고 土器는 槨의 補強土 위 혹은 槨上部 등 槨外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木槨墓의 부장풍습의 잔재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내려온다고 생각되는 부산 노포동 遺蹟¹⁰⁾의 경우에는 토기도 모두 槨內에 위치하며 점차적으로 받치쪽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부장풍습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주요 출토 유물로는 臺附長頸壺, 臺附直口壺, 爐形土器 등 新式瓦質土器와 鐵劍, 鐵鉞, 鐵鏃 등의 武器 및 도끼, 낫, 손칼 등의 利器가 출토되고 있으며, 장식구로는 水晶製의 切子玉, 曲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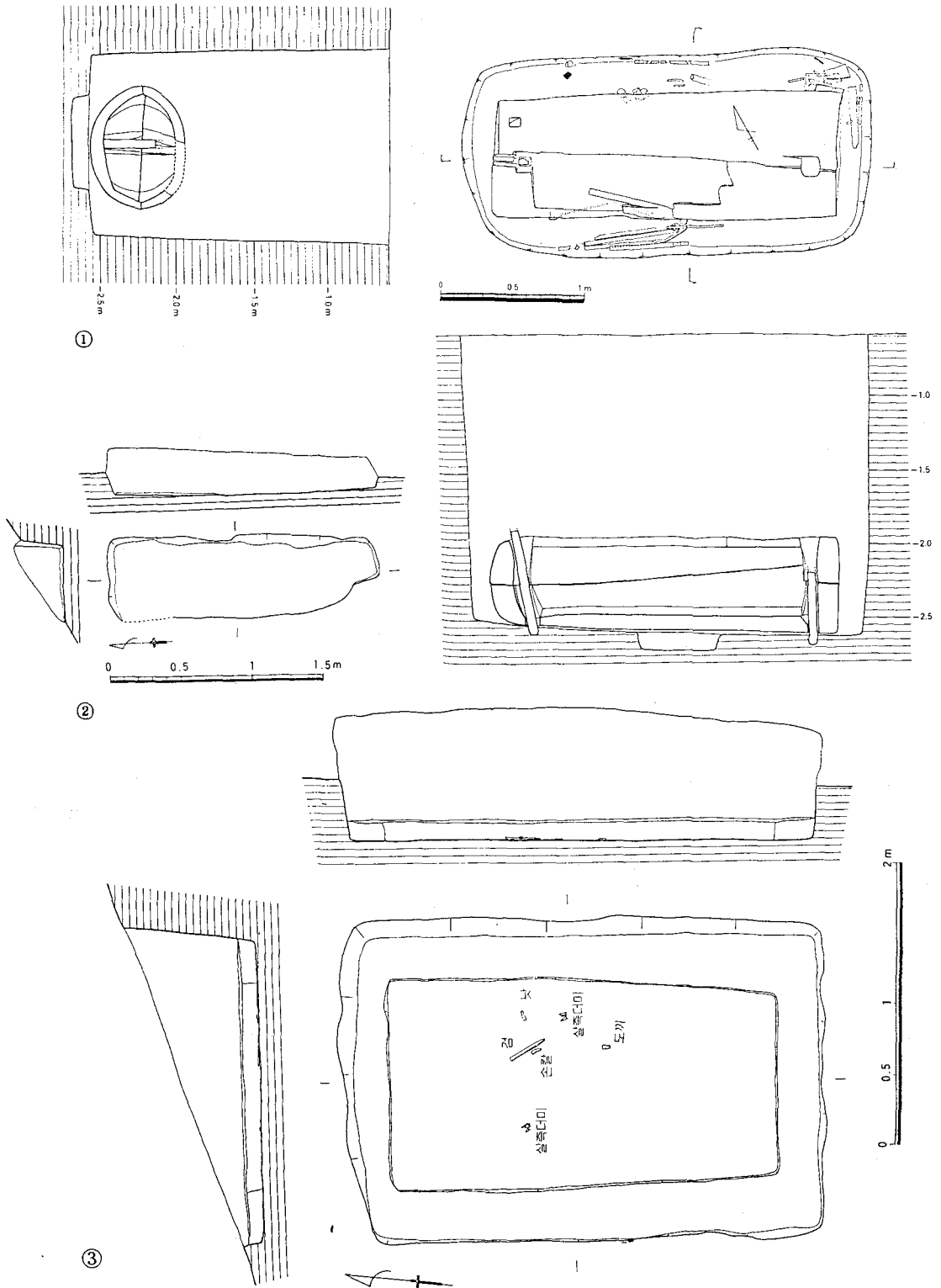
이러한 木槨墓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大形化하여 原三國時代 말기에 이르면 慶州 朝陽洞 收拾調査墳과 같은 형태의 副槨이 발생하고 곧 이어 陶質土器가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지고, 그 立地도 현재까지의 낮은 구릉 혹은 산기슭에서 벗어나 점차 산등성으로 이동하여 金海 七山¹¹⁾, 釜山 福泉洞¹¹⁾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大形木槨墓로 발전하게 된다.

甕棺墓 또한 初期鐵器時代 이래의 甕棺墓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시기의 주요 遺蹟으로는 前記한 義昌 茶戶里, 慶州 朝陽洞, 金海 良洞, 釜山 老圃洞 등 외에 金海 池內洞¹²⁾, 退來里¹³⁾ 등의 遺蹟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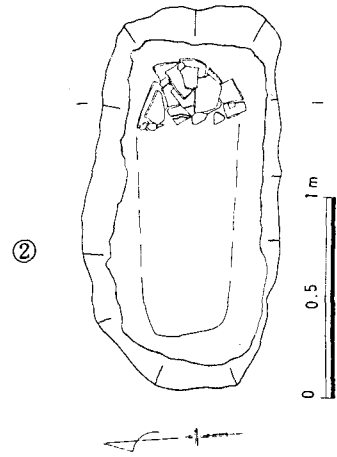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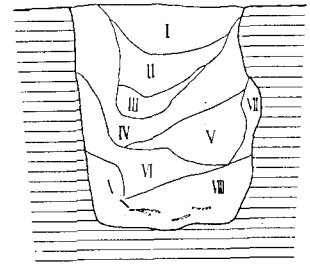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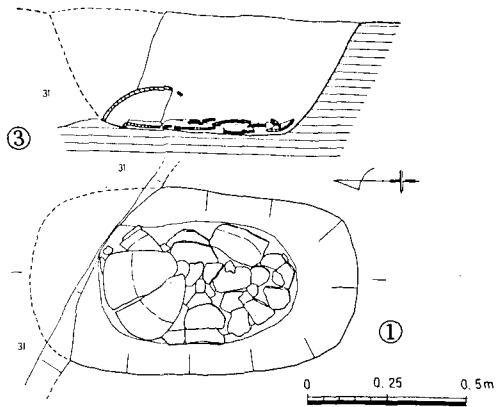
구조는 대개 地表面을 얇게 파서 甕棺 및 副葬遺物을 배치한 후 흙으로 덮는 형태인데, 良洞里 10호분과 같이 특이하게 깊게 판 경우도 있다. 單甕式과 合口式이 混在하며 甕棺에 쓰인 甕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單甕式은 대개 長胴의 甕을 가로로 눕혀 매장한 것인데, 한쪽 입구는 돌·토기편 혹은 木板 등으로 막은 것이다. 合口式은 2개 이상의 甕 또는 壺를 맞물려 만든 것으로, 대개 主甕과 막음甕으로 나뉘어 지는데, 主甕은 長胴의 甕·壺 등이 많이 쓰인 반면, 막음甕은 短頸壺, 爐形土器, 甕, 甌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것은 甕棺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용기를 전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甕棺墓 중에는 義昌 茶戶里, 釜山 노포동의 경우처럼 木槨(槨)墓의 陪墓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小兒用 무덤으로 보인다.

原三國時代의 墓制로서는 이들 외에 石棺墓를 들 수 있다. 固城 송천리 술섬석관묘¹⁴⁾가 유일한 예인데 板石을 여러 매 잇대어 세워 만든 石棺墓內에 瓦質土器가 副葬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역시 小形의 板石이 깔려 있었으며 뚜껑은 불명이다. 石棺墓의 調査例가 부족하여 그 性格, 系統 등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으나, 靑銅器時代 이래의 石棺墓 전통이 遺存한 것으로 昌原 三東洞, 金海 禮安里¹⁵⁾ 등의 石棺墓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도면1. 木槨墓 : ① 의창 다호리 1호분 ② 김해 양동리 19호분 ③ 김해 양동리 5호분



도면2. 甕棺墓 : ① 김해 양동리 13호분 ② 김해 양동리 10호분

〈註〉

- 1) 金基雄, 「墓制」 『韓國史論』13, 1984, 國史編纂委員會.
- 2) 토광묘가 다수 조사되었으나 보고서는 미간이다.
- 3) 李健茂 外, 「義昌茶戶里 遺蹟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1989,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4) 韓永熙 外, 「김해 양동리 고분」, 1989, 문화재연구소.
- 5) 차용걸, 「청주신봉동 遺蹟發掘조사보고」, 『韓國支石墓의 諸問題』, 1990, 韓國考古學會
- 6) 崔鍾圭, 「慶州市朝陽洞遺蹟發掘調査概要とその 成果」, 『古代文化』35, 古代學協會, 1983
- 7) 註3) 과 같은 글
- 8) 註4) 와 같은 글
- 9) 尹炳鏞, 「釜山老圃洞古墳」, 釜山直轄市立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2冊, 1985
尹炳鏞 · 宋桂鉉, 「釜山老圃洞遺蹟Ⅱ」, 釜山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12冊, 1988
- 10) 申敬徹 외, 「金海七山洞古墳群Ⅰ」, 慶星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1輯, 1989
- 11) 鄭澄元 · 申敬徹, 「東萊福泉洞古墳群Ⅰ」, 釜山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報告 第5輯, 1983
- 12) 沈奉謹, 「金海池內洞甕棺墓」, 『韓國考古學報』12집, 韓國考古學研究會, 1982. 6
- 13) 孫秉憲 外, 「金海退來里遺蹟」, 成均館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査報告1, 1989
- 14) 金東鎬, 「固城松川里솔섬石棺墓」, 東亞大博物館, 1977
- 15) 釜山大學校 博物館, 「金海禮安里 古墳群Ⅰ」, 釜山大學校 博物館 遺蹟조사보고 제8집, 1985

土 器

전 옥 년 (부산대 박물관)

原三國時代는 考古學的 時代區分에 의하여 青銅器時代와 三國時代 사이에 비정되며, 그 중심 시기는 대체로 1世紀에서 3世紀대에 이르는 약 300년간의 시기폭을 갖는다. 또 歷史的으로는 三韓이 존속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므로 이 시기의 문화상을 전반적으로 究明하기 위하여는 發掘調査 등을 통한 考古學的 調査成果와 文獻記錄을 통해 나타나는 당시의 歷史的情況, 즉 당시의 주변정세 및 주변문화와의 교섭관계 등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原三國時代의 土器文化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존의 無文土器의 제작기술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漢式土器(灰陶) 제작기술의 영향으로 성립된 土器文化가 바로 瓦質土器文化로서 原三國時代의 전반적인 土器文化相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金海(式)土器」로 불리우면서 土器文化性格을 불분명하게 하였던 과거의 연구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원삼국시대의 토기문화론을 펼치고 있는 연구 경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두는 정도로 紙面을 약간 割愛해 두고자 한다.

과거, 원삼국시대의 토기는 이른바, 金海(式)土器로 通稱되어 왔으나 그 개념과 존속시기폭이 사실상 대단히 애매모호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이후 자료의 축적과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의하여 기존의 연구가 대폭 수정·보완되고 또한 성격이 명료해졌다. 따라서 '金海(式)土器'가 어떤 時代特徵을 반영해주는 土器樣式의 개념으로 성립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철회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만일 이 시기의 토기문화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用語가 필요하다면 1~3世紀代의 韓半島地域의 土器相이 크게는 軌를 같이하는 문화전통을 보이므로 凡三國地域을 통괄한다는 의미에서 三韓土器로 부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와질토기의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土器文化로는 인정하지 않고 영남지역 특유의 토기양식 내지 墳墓副葬專用器로서의 토기양식으로만 그 성격을 축소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은 경향은 300여년간 존속된 瓦質土器文化의 발전단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이 시기의 조사자료를 잘못 해석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차후로도 계속 補訂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된 現時點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瓦質土器文化期라 하여, 이 시기에 瓦質土器만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더불어 赤褐色軟質土器類가 原三國時代 土器文化, 다시 말해 瓦質土器文化期의 兩大脈絡을 이루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灰青色硬質土器 등으로 불리는 陶質土器의 出現은 이보다 훨씬 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瓦質土器文化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瓦質土器(文化)란 종래의 無文土器技術傳統의 바탕위에서 漢式土器文化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은 灰白色 基調의 瓦質土器와 종래의 無文土器의 기술전통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赤褐色 基調의 軟質土器로 兩大分된다.

먼저 灰白色瓦質土器類의 土器屬性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胎土는 미세한 砂粒質이 소량 함유된 대단히 精選된 粘土이다.
- ② 回轉板 위에서 成形이 이루어졌으며 打捺·研磨·예세깎기·회전물손질조정·회전목리조정 등 器面調整技法이 고급화, 다양화 되었다.
- ③ 폐쇄요에 의한 還元焰技法에 의해 燒成이 이루어짐으로써 토기의 색조는 주로 灰白色, 明灰色, 灰褐色 등 灰色을 기조로 한다.
- ④ 燒成도는 재래의 無文土器質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기와질의 소성온도, 즉 대체로 700~900℃ 수준에 머물러 無文土器와 마찬가지로 토기의 吸水性은 여전히 강한편이다.

다음은 赤褐色 軟質土器類의 土器屬性이다.

- ① 胎土는 瓦質土器에 비한다면 石粒, 砂粒 등이 많이 함유된 粗質이지만 無文土器의 태토에 비한다면 월등한 精質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成形에서 器面調整에 이르는 제작 공정상의 제반기술은 瓦質土器의 그것과 같이 통용되나 無文土器 제작기술도 계속해서 일부 채용되고 있다. 즉 기면조정기법 중 縱向의 木理調整技法이 軟質甕類에서는 여전히 애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와질토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반면, 연결토기에는 主技法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③ 土器의 색조는 赤褐色, 黃褐色調를 기본으로 하므로 無文土器 제작기술전통으로 종래와 같이 끝까지 산소와 접촉하는 상태로 燒成한 酸化焰技法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燒成도는 瓦質土器와 거의 같은 온도 내지는 약간 低火度이므로 土器의 吸水性 역시 강한 편이다.

이상에서 瓦質土器文化의 양대흐름으로서 회백색 와질토기와 적갈색 연결토기가 가지는 일반적인 性格 및 제작특징을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兩土器類는 모두 漢式文化와의 교섭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製陶術에 따라 제작되었지만 토착기술전통을 여전히 여러 면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 적갈색 연결토기이며, 新製陶術에 의해 전혀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백색의 와질토기라 할 수 있다.

한편 瓦質土器文化期는 土器 자체내의 器形變化, 器種構成 및 他遺物과의 共伴關係, 또 遺構의 변화상 등에 의해 다시 前·後期로 兩大分될 수 있다. 이 兩時期의 土器相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器種과 器形의 變化: 前期에는 組合牛角形把手附長頸壺를 위시하여 圓底短頸壺, 소위 '주머니호'로 불리는 瓦質製의 小形甕, 大小의 軟質甕 등이 主器種으로, 단순한 기종구성을 보인다. 반면, 후기에 들어서면 조합우각형과수부장경호는 대부장경호, 또는 대부직구호류로 대체되고 圓底短頸壺類와 軟質甕類는 여전히 주기종으로 남아있지만 '주머니호'로 불리는 瓦質製은 완전하게 소멸되고 新器種으로서 高杯³⁾와 爐形土器類가 나타나고 儀器的性格의 鴨形土器도 후기의 다소 늦은 시점부터 비로소 제작되기 시작한다.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새로운 기종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일기종내에서도 器形變化가 복잡·다양하여 이들을 통한 型式分類에 의하여 '後期는

다시 여러 小時期로 細分도 可能하다. 기형변화의 다양성은 특히 臺附壺類와 爐形土器類가 두드러지므로 이들 양 기종은 後期를 細分하는데 중요한 指標가 되고 있다.

② 製作技法의 變化: 기본적인 제작기술전통은 전기에서 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 燒成度도 점차 향상되며 성형·정면기법상의 세부기술은 점차 다양해진다. 또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토기 자체에 장식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데, 특기할 만한 기법중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는 것이 대부호류의 胴體部에 보이는 옷칠장식기법이다. 즉, 縱向과 橫向의 沈線文帶를 간격을 두면서 시문하고 그 간격의 공백에 검은 옷칠을 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아마도 漆器製作技法이 토기에 일부 채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③ 墓制의 변화에 따른 土器相의 변모: 와질토기문화의 土器內容을 주도하는 것이 墳墓埋納의 土器類인데 당시 社會變化相을 잘 반영하고 있는 墓制의 변화와 遺物의 變化·發展相이 그 변화와 軌를 같이 하므로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前期에는 小形의 木棺墓가 주요제로 채용되었으며 따라서 매납유물량도 소량인 편인데 이것은 前期의 土器文化가 다소 단순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후기에 들어서면 목곽묘 대신 목곽묘가 채용되어 분묘의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大形級과 小形級으로 격차가 생기고, 이것은 후기 후반대이후 나타나는 主槨·副槨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초대형급 목곽묘단계에 한층 심화된다. 후기의 土器相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유물의 부장도 점차 대량화되는 양상과 이 역시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당시 사회상의 발전·변모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生活用土器와 副葬用土器의 土器內容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生活用土器란 生活遺蹟, 그것도 住居遺蹟을 중심으로 貝塚, 또는 文化層 內에서 검출되는 유물로서 당시의 生活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그런데 生活用土器는 이른바 「中島式土器」를 내는 몇몇 주거유적⁴⁾을 비롯, 점차 그 출토례가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墳墓遺蹟 出土資料에 비하면 대단히 단순·빈약한 편이며 그 究明도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生活用土器와 副葬用土器의 出土相을 중심으로 양자의 성격양상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만 도출해내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同一器種내에서도 부장용토기는 생활토기보다 비교적 精製되고, 器形도 다양하며 그 구성내용이 풍부하다. 즉 短頸·長頸壺類, 高杯, 爐形土器, 甕類 등 이 시기의 土器種이 두루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형상의 다양성과 장식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臺脚이 부착된 高臺狀土器類 등은 용기 그 자체에서부터 실용성보다 강한 儀器的 性격을 느끼게 한다. 그의 軟質甕類도 소형품이 주로 매납되어 있으며 三瘤附甕 등 비실용적인 토기가 많아 처음부터 분묘에 매납하기 위해 제작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원저단경호류는 精製된 質의 정도차는 있으나 양 유적에 출토되는 것 간에 큰 차이점이 띄지는 않는다.

그런데 墳墓埋納遺物은 대부분 死者埋葬 당시에 같이 매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同時期製作品들로서 제작당시의 토기문화상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好資料로써, 유물을 통한 編年作業의 標識

遺物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시기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상을 究明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즉 瓦質土器文化期の 生活用土器相은 주거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구성을 대표적 例로 한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甕類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軟質製와 瓦質製, 大形과 小形, 把手附着有無 등 크기와 質, 그리고 기능적 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보인다. 이러한 용기들은 食生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은 食用器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능에서 두드러지는 器種이 바로 食物을 익히는 목적(煮沸用)으로 쓰였을 시루(甑)이다. 그외 원저단 경호유도 많이 검출되는데 瓦質製로서 食物의 저장용기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副葬專用器로 생각되는 器種들도 小例 검출되고 있다.

한편 이 시기 生活用土器文化의 대표적인 樣式은 前述했듯이 이른바 「中島式土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도식토기」는 中島遺蹟에서 출토된 無文土器質의 甕類를 표식유물로 하는 것으로 江原道の 屯内遺蹟, 柯坪里遺蹟, 中原 荷川里유적 등 원삼국시대의 住居遺蹟을 그 指標로 하고 있다.⁵⁾ 또 이 「중도식토기」는 대체적으로 原三國時代의 原初段階에 있어서 無文土器文化가 瓦質土器文化期로의 移行過程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토기양식으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집중검출되고 있으므로, 瓦質土器文化의 發源地의 土器文化相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⁶⁾

또한 生活用土器의 주종이 적갈색연질토기인데 이 직전단계의 土器文化相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중도식토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중도식토기」문화양식을 瓦質土器文化가 결합된 하나의 地域樣式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 자체만이 원삼국시대의 한반도 중부지역에 존재하였으며 瓦質土器는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原三國時代의 土器文化, 즉 와질토기문화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 보았다. 이 와질토기문화는 자체내의 제작기술발전과 外部의 新技術⁷⁾의 영향으로 4世紀를 전후한 時點에서 한 차원 높은 製陶技術水準인 陶質土器 文化段階로 이행되어 이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이고 다양한 土器文化가 전개되게 되는 것이다.

〈註〉

1) 金元龍에 의해 제창되어진 「金海式土器」는 申敬澈·崔鍾圭등 연구자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고 그 이후 1~3世紀代의 토기문화상이 차츰 명료하게 해명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시기, 즉 원삼국시대의 토기문화는 와질토기의 존재로 표식되어지므로 존속시기폭과 토기성격 등 개념규정이 애매모호한 「김해식토기」라는 용어는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라리 와질토기의 製法的, 器形的 特徵이 당시의 時代相과 잘 결부되어 나타나는 「三韓土器」라는 용어가 훨씬 諸土器性格을 잘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申敬澈,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1982.

② 崔鍾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그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1982.

③ 武末純一, 「慶尚道の瓦質土器と古式陶質土器」, 『古文化談叢』 15, 1985.

2) 김원룡은 下記의 論著에서 기존의 견해를 일부 철회·수정하기는 하였으나 陶質土器도 瓦質土器와 同時期에 並用되었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연구자들도 몇몇 있는데 崔盛洛은 下記의 論文에서 그의 論旨를 개진하였다.

① 金元龍, 「所謂 瓦質土器에 對하여」, 『歷史學報』99·100合輯號, 1983.

② 金元龍, 「第7章 原三國文化」, 『韓國考古學概說(第3版)』1986.

③ 崔盛洛, 「原三國期土器의 變遷과 問題點」, 『嶺南考古學』5, 1988. 8

3) 현재까지 와질제로서 前期에 속하는 高杯는 검출례가 없다. 경남 의창군 다호리 유적의 例로 미루어 高杯가 前期에는 漆器專用으로만 제작되던 기종이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 瓦質土器製品으로 대체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단언하기는 곤란하므로 일단 그 가능성 정도만 제시해두는 선에서 이후 자료의 축적을 기다리고자 한다.

4) 한강유역의 中島遺蹟을 비롯, 柯坪里, 屯內, 荷川里, 大也里, 大谷里遺蹟 등을 대표적인 이 시기의 주거유적으로 들 수 있다.

① 李健戊 外, 「中島 I」,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11冊, 1980.

② 池健吉·韓永熙, 「中島 III」,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14冊, 1982.

③ 白弘基, 「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調查報告(I)」, 江陵大學博物館, 1984.

④ 元永煥·崔福圭, 「屯內」,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

⑤ 尹容鎮, 「中原荷川里 F地區 遺蹟 發掘調查報告」, 『1983·1984年度 忠州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종합보고서』考古·古墳分野(II), 1984.

⑥ 林孝澤 外, 「大也里 住居址 I」, 東義大學校博物館, 1988.

⑦ 林孝澤 外, 「大也里 住居址 II」, 東義大學校博物館, 1989.

⑧ 崔夢龍 外, 「大谷里 도롱 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1989.

徐聲勳·成洛俊, 「대곡리 도롱·한실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VI)」, 1989.

5) 註 4)의 上揭書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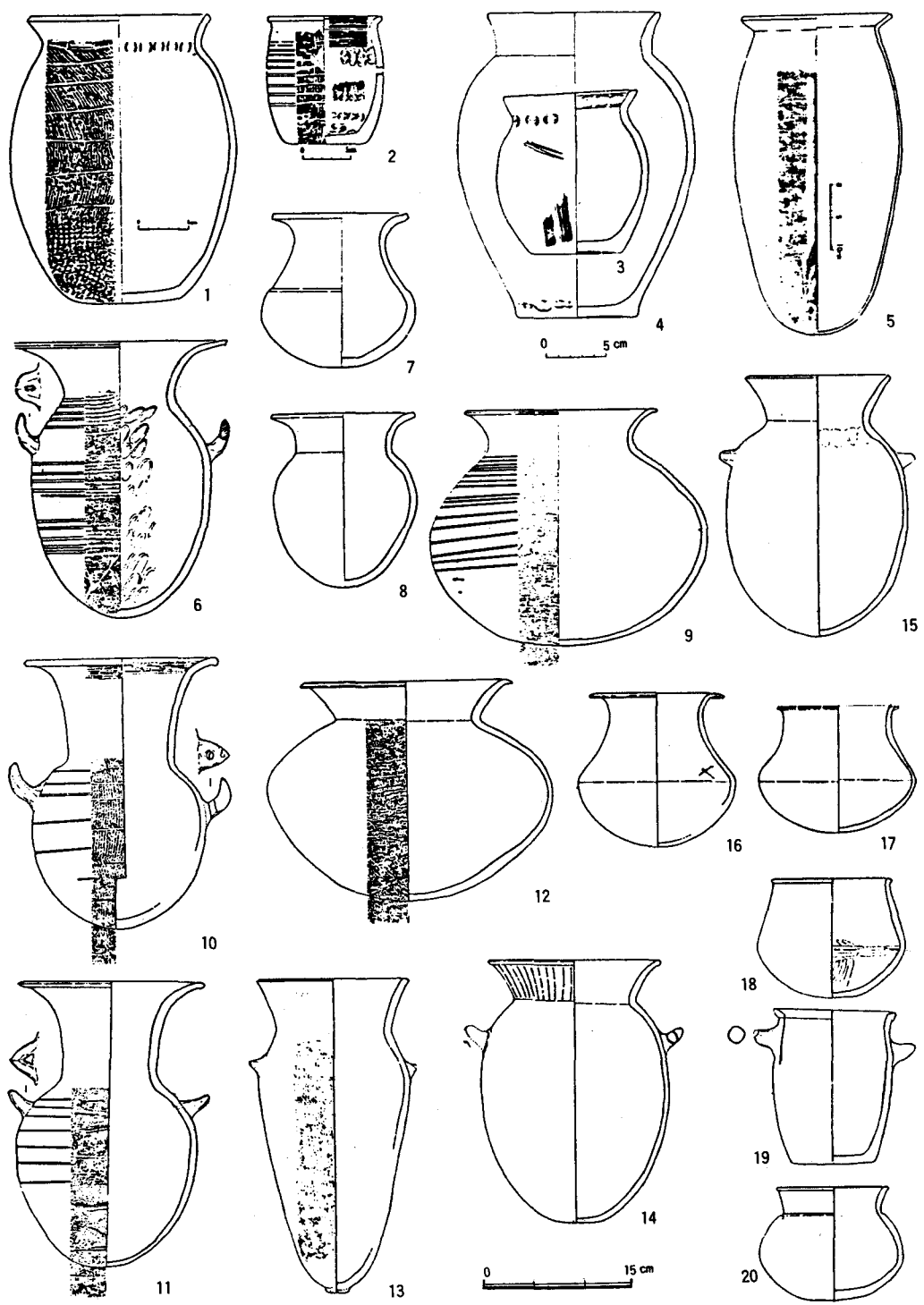
6) 申敬澈, 「삼한시대 ④」, 『부산라이프』, 제27호, 1988. 6. 10日字 參照

7) 三韓土器文化의 원류가 그러했듯이 陶質土器의 발생도 中國의 新製陶術과의 기술접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도질토기 발생기에 즈음하여, 中國의 磁器文物이 상당수, 그것도 馬韓·百濟地域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는 사실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몽촌토성출토 錢文陶, 法泉里 2號墳出土 青磁羊形器, 花城郡 花院出土 青磁盤口壺 등이 그것이다.

한편 申敬澈은 이러한 유물출토예를 통하여 도질토기 제작기술의 원류를 찾하고자 했으며, 이것은 中國南朝와의 교섭에 의해 도입된 新製陶術 즉, 登窯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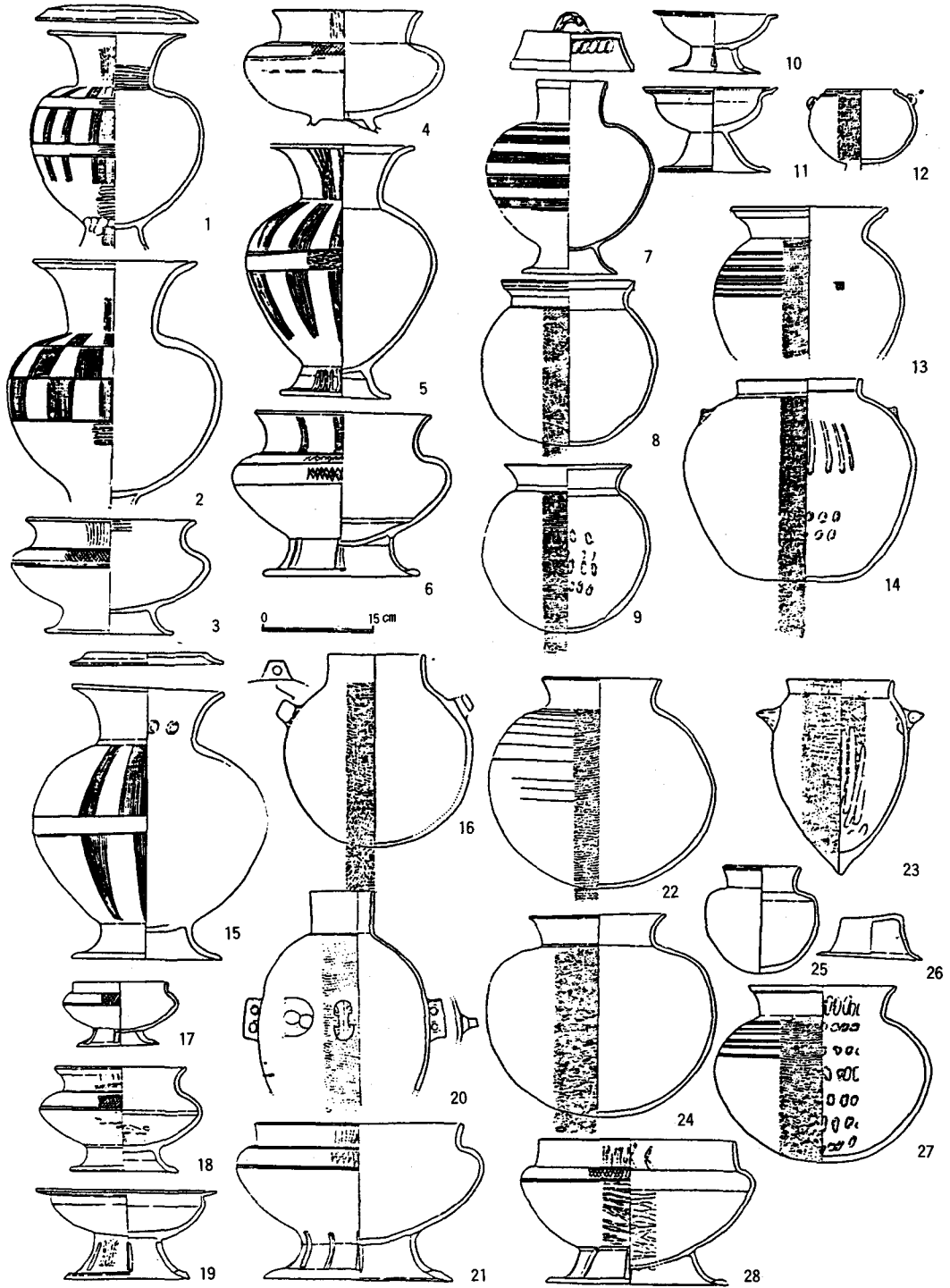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財) 韓日文化交流基金, 1986.

申敬澈, 「삼한시대 ⑥」, 『부산라이프』 제29호 (1988. 7. 1) 및 「삼한시대 ⑥」 同誌, 제37호 (1988. 11.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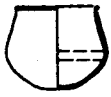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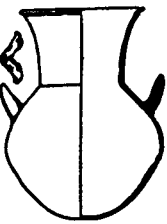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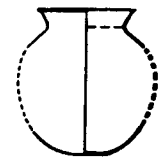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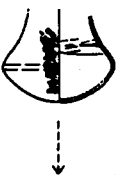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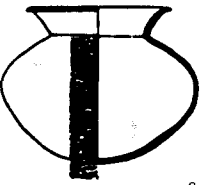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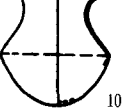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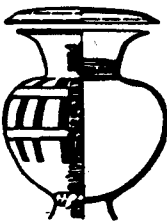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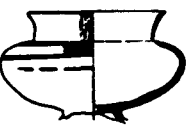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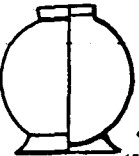








圖面 1. 瓦質土器文化 前期의 土器群 (6~20, 約 1/6축소)

1. 中島 1호 주거지, 2~4. 中島 2호 주거지, 5. 金海 府院洞 貝塚 A地區
 6~9. 金海 良洞 2호분, 15~17. 密陽 密城고등학교 소장품 18~20. 釜山 久瑞洞 출토품



圖面 2. 瓦質土器文化 後期の 土器群 (縮尺 約1/8)

1~14. 蔚州 下袋遺蹟 出土遺物
 1~3・22. 釜山 老圃洞 3 号分, 16~21, 23・24, 同 35号分
 25・26. 同 33号分, 27・28. 同 38号分

	長頸壺	短頸壺	小型甕	埴形土器	
I	 1	 對馬小性 3號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慶州朝陽38號(1) ●日本對馬小性島3號(2) ●釜山久瑞洞(3) AD50
II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邱八達洞(4) ●金海池內洞(5) ●慶南密陽(6) AD100
III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慶南密陽(7~10) ●固城松川 ●對馬白岳 AD150
IV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蔚州下壘(11·12) ●城山東區中層(13) AD200
V	 14		 1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慶州朝陽洞3壘(14) ●城山東區中層(15) ●蔚州下壘 AD250
VI	 17  18  19 啓明大藏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朝陽洞申告品 ●蔚州下壘(22) ●啓明大藏 AD300
陶質土器		 23  24 禮安 74號		 禮安 74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慶州九政洞 ●金海禮安74號 ●金海貝塚 ●對馬大將軍(24) AD313

圖面3. 編年表(崔鍾圭案)

編年	段階	壺					甗			高杯	軟質甕	所屬遺蹟·遺構
		臺附長頸壺(I類)	臺附短頸壺(I類)	臺附直口壺(I類)	大型(I類)	小型(II類)	短頸甗(I類)	耳附壺(II類)	陶質壺(III類)			
後期 先行段階	I 段階	 	 								1. 星州禮安洞遺蹟 2. 湖林美術館 所藏品 3. 4·6 密陽內二洞遺蹟 5. 釜山久瑞洞遺蹟	
後期 前代(後期 I 期)	II a 段階	 	 								7·8. 蔚州下空遺蹟	
	II b 段階	 	 	 	 			 			9. 延世大 所藏品 10·12·14·16. 蔚州下空遺蹟 11·18·20·21. 釜山老圃洞 3號墳 15·17·19·22·24·25. 釜山老圃洞 35號墳 23. 湖林美術館 所藏品 13. 李養禧 所藏品	
後期 後代(後期 II 期)	III a 段階	 	 	 	 	 					26·27. 釜山老圃洞 33號墳 34·38. 釜山老圃洞 1號墳 29·32. 釜山老圃洞 31號墳 33·35. 釜山老圃洞 38號墳 27. 慶州明陽洞 政治遺蹟 28·30·39. 蔚州陸城洞遺蹟 31. 李養禧 所藏品 36·40·41. 蔚州下空遺蹟 (36名, 株田A) 42. 下空政治遺構 II	
	III b 段階	 	 									43. 金海禮安里 90號墳 44·46·48·49·54·56·57. 金海禮安里 160號墳 45·47·58. 金海禮安里 74 號墳 50. 蔚州本里遺蹟 51. 蔚州下空政治遺蹟 I 52. 蔚州下空 葬遺 釜塚 53. 蔚州下空 葬遺 釜塚 54. 蔚州下空 葬遺 釜塚 55. 蔚州下空 葬遺 釜塚 56. 蔚州下空 葬遺 釜塚 57. 蔚州下空 葬遺 釜塚 58. 蔚州下空 葬遺 釜塚 59. 蔚州下空 葬遺 釜塚

圖 4. 後期瓦質土器の編年表(全五年案)

鐵製武器

송 계 현 (부산시립박물관)

原三國時代는 기원전후 1~3세기대로서 三韓社會로 대표되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鐵器生産이 本格化된 시기이다. 최근 들어 原三國時代의 文化內容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嶺南地域을 중심으로 많은 原三國時代의 墳墓遺蹟이 조사됨으로써 그 文化內容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가고 있다.

表. 原三國時代 墳墓遺蹟出土 鐵製武器

遺構	鐵鏃	鐵鉞	鐵劍	鐵刀	鐵戈	遺構	鐵鏃	鐵鉞	鐵劍	鐵刀	鐵戈
의창다호리1호		4	4	1	1	부산노포동1호		1			
5호		2				3호	2	1			
6호		4	1			6호	5	1			
10호			1			7호		9			
11호	7					8호		2			
호림미술관소장					5	16호	26	2			
부산시박소장					1	17호	5				
김해양동리1호	7	2				21호	2	2			
4호	23	2	1			24호		1			
5호	8			1		31호	112	2		1	
6호	3	1				33호	8			2	
7호	17	5	2			34호	2				
8호	2					35호		1			
9호		1				41호	5				
16호	1					고성 송천리					
17호		2				솔섬 9호			1		
채 집		1				경주 황성동	1				
출토품		2	2			경주 구정동				1	
함천저포A8호	4					월성 입실리			1		
11호		1									
40호			1								
41호	1	1									
42호		1	1								

墳墓에서 출토되는 鐵製品 중 鐵製武器는 鏃, 鉞, 劍, 刀, 戈 등이며 영남지역의 墳墓遺蹟¹⁾에서 출토된 原三國時代의 鐵製武器는 앞의 表와 같다. 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외의 미발표자료로서 慶州朝陽洞遺蹟²⁾, 慶山造永洞遺蹟, 昌原道溪洞遺蹟³⁾ 등의 出土品이 있다. 한편 영남지역 외 濟州龍潭洞古墳⁴⁾, 忠北堤原陽坪里二號墳⁵⁾등에서도 原三國時代의 鐵製武

기가 출토되었고, 生活遺蹟인 水原 西屯洞住居址, 橫城 屯內 1號住居址⁶¹등에서도 鐵鏃이 出土되었다.

1. 鐵鏃

原三國時代의 鐵製武器 중 숫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原三國時代의 鐵鏃은 莖의 有無를 기준으로 크게 無莖式鐵鏃과 有莖式鐵鏃으로 나누어진다. 無莖式鐵鏃은 지금까지 약 100例 이상 출토되었으며 기원전후부터 4세기대까지 사용된 鐵鏃이다. 기본적으로는 平面三角形을 띠나 鏃身의 형태, 彎入部의 모양에 따라 그 變化가 다양하다.

鏃身의 形態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鏃身의 兩側線이 先端으로 부터 약간 內彎氣味로 外傾하여 末端에 이르는 것으로 義昌茶戶里 11號木棺墓 出土品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彎入部는 모두 三角形을 띤다. 둘째는 鏃身의 兩側線이 平行하거나 약간 外傾하는 것으로 金海良洞里 7號墓 出土品을 標識的인 것으로 들 수 있다. 彎入部가 梯形인 것이 많다. 셋째는 鏃身의 最大幅보다 末端의 폭이 약간 좁아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舟形을 띠는 것도 있다. 金海良洞里 5號墓와 濟州龍潭洞古墳 出土品이 이에 속한다. 彎入部가 弧形을 띠는 것이 나타난다. 넷째는 鏃身의 兩側線이 彎曲하여 末端 가까이서 最大幅을 이루고 다시 外傾하여 末端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4가지 형태의 鏃身은 첫째에서 넷째의 순으로 變化한다. 末端彎入部의 모양에는 三角形, 梯形, 弧形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三角形→梯形→弧形의 順으로 變化⁷⁾하나 3가지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釜山老圃洞 16號墓의 小形無莖式三角形鐵鏃이나 金海良洞里 4號墓의 無彎入五角形鐵鏃은 매우 小形일 뿐 아니라 兩墳墓가 이미 有莖式鐵鏃이 다량 출토되는 시기의 것이므로 實用鐵鏃이라기 보다는 副葬用으로 제작된 鐵鏃으로 보아진다.

有莖式鐵鏃은 鏃身의 形態에 따라 斷面V形(骨鏃形), 斷面V形逆刺式, 柳葉形, 柳葉形逆刺式, 菱形, 四角錐形, 鑿頭形 등 다양한데 前五者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原三國時代後期에 出現하며 出現初期에는 小形이었으나 점차 대형화된다. 無莖式鐵鏃에 비해 先端이 예리하여 貫통력이 증대된 상태이며 점차 長大化되면서 무게가 증가되어 貫통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柳葉形의 경우 金海良洞里4號墓의 예와 같이 鏃身이 細長하였으나 점차 釜山老圃洞31號墓의 예와 같이 鏃身의 幅이 넓어지고 무게가 증가되어 刺傷力과 貫通力이 동시에 증대된다. 斷面V形有莖式鐵鏃은 洛東江下流域에서만 출토되는 鐵鏃으로 타지역에서는 전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日本 北九州의 鄉屋遺蹟⁶²에서 2점 출토되었다. 특히 釜山老圃洞31號墓에서는 有莖式鐵鏃만 112點이 출토되어 鐵鏃이 多量埋納이라는 숫적인 증가와 함께 無莖式鐵鏃이 소멸되고 有莖式鐵鏃이 일반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原三國時代의 有莖式鐵鏃에는 頸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釜山老圃洞41號墓와 金海良洞里 4號墓에서 각각 1點씩 출토되었으나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 鐵鉞

鐵鉞는 原三國時代의 武器 중 2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40例이상 알려져 있고 형태도 다양한

편이다.

原三國時代初期의 鐵鉞로는 義昌茶戶里 1號木棺墓 出土 철모를 들 수 있다. 4점 모두 길이가 40cm대로 긴 편이다. 鋒部の 斷面이 扁六角形이고, 鋒部和 銚部の 比가 1:1에 가깝다. 公부는 봉부쪽의 폭이 좁아 전체 폭의 차가 심한 편이다. 이러한 점은 平壤貞栢里採土場, 平安南道斧山面, 平安南道大同郡龍岳面上里的 출토품과 극히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독단적인 所産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부지방 또는 中國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金海良洞里7號墓의 2段柄式철모는 길이 30cm 전후이며 현재 慶尙南北道地域에 한정되어 출토되고 타지역에서는 전혀 유례가 없는 것이다. 嶺南地域에서 鐵製品의 生産이 本格化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철모로 생각된다. 이것과 함께 출토되는 1段柄式의 鐵鉞는 直角關을 가지며 鋒部:銚部가 3:2에 가깝고 봉부의 단면이 菱形 또는 볼록렌즈형이다. 공부에 있어 봉부쪽의 폭이 비교적 넓으므로 전체폭의 차이가 적다.

原三國時代後期에 해당되는 釜山老圃洞遺蹟의 경우 1段柄式의 鐵鉞만 출토되나 鐵鉞의 형태는 다양하다. 크개는 關部の 형태에 의해 台狀을 띠는 것과 직각을 이루는 것으로 나뉘어 진다. 台狀關의 철모는 關部가 뚜렷하나 직각을 이루지 않고 그 폭이 축소되면서 關部에 이른다. 2段柄式의 철모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아진다. 直角關의 철모는 점차 鋒部:공부가 1:1에 가까워져 간다. 특히 시기가 내려올수록 鐵鉞의 길이가 40cm 以上으로 장대해지는데 釜山老圃洞21號墓의 출토품과 같이 75cm 정도인 것도 있다. 또한 關部가 강조되어 菱形을 띠기도 하고 鉞身에 비해 공부의 길이가 매우 짧아 實用性이 전혀 없는 것도 나타난다.

3. 鐵劍

鐵劍은 嶺南地域에서 출토된 것이 약 20例 정도 알려져 있고 그이의 제주도와 북부지역에서 15例정도 출토되었다. 嶺南地域出土의 鐵劍은 모두 길이 50cm 이하의 短劍인데 莖의 길이에 의해 短莖式과 長莖式, 無莖式으로 대별된다.

無莖式鐵劍은 義昌茶戶里 1號木棺墓와 金海良洞里5號墓에서 출토되었으며 全體的으로 劍身이 細長한 편이다.

短莖式鐵劍은 金海良洞里出土品, 同 7號墓出土品, 固城松川里술섬9號石棺墓 출토품 등인데 莖의 길이가 2~3cm 정도로 매우 짧다. 靑銅器時代의 細形銅劍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로 2段柄式의 철모와 함께 출토되고 劍身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장경식철검은 莖의 길이가 10cm 정도로 긴 편이다. 전체적으로 단경식철검에 비해 길이가 길고 검신이 細長해 진다. 함께 출토되는 철모는 1단병식 뿐이다.

鐵劍은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短莖式에서 長莖式으로 변화한다. 無莖式의 경우는 原三國時代初期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金海良洞里5號墓와 같이 예외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진다. 한편 原三國時代後期의 遺蹟인 釜山老圃洞遺蹟에서는 鐵劍이 전혀 出土되지 않았다.

4. 鐵製素環刀

지금까지 알려진 原三國時代의 素環刀는 모두 7點인데 이 중 義昌茶戶里 1號木棺墓, 金海良洞里 8號墓, 堤原陽坪里 2號墓 出土의 素環刀는 길이 30cm 전후로 武器라기 보다는 刀子에 속한다. 또한 慶州九政里出土品은 많은 靑銅器와 함께 出土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경에 속하는 것이다. 나머지 3점은 모두 釜山老圃洞遺蹟에서 出土되었으며 原三國時代後期에 해당된다. 3점 모두 背關과 刃關이 뚜렷하지 않고 폭이 축소되면서 단면이 長方形으로 변하는 정도로 柄部와 刃部가 구분된다. 環頭部分이 抹角方形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다. 釜山老圃洞 33號墓에서는 길이가 다른 大小 두 종류의 環頭大刀가 함께 出土되었으므로 용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 현재의 자료로서는 慶州九政里出土品과 釜山老圃洞出土品은 그 계보가 연결되지 않으며 武器로서 素環頭大刀가 사용된 시기는 原三國時代後期라고 생각된다.

5. 鐵戈

戈는 身의 刃部가 柄과 직각을 이루는 武器이다. 지금까지 8례가 알려져 있으나 出土유구가 명확한 것은 慶州朝陽洞5號墓와 義昌茶戶里 1號墓出土의 2例 뿐이다. 8점 모두 길이 30cm 미만의 鐵戈로 血溝가 없고 身部斷面이 볼록렌즈형이며 穿이 원형인 점이 특징이다. 上記의 兩墓構가 출토유물로 보아 기원전 1세기대에 속하고, 8점의 형태가 유사하므로 鐵戈는 原三國時代初期에 한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아진다.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가 末期의 銅戈와 유사하므로 末期銅戈를 모델로 하여 일시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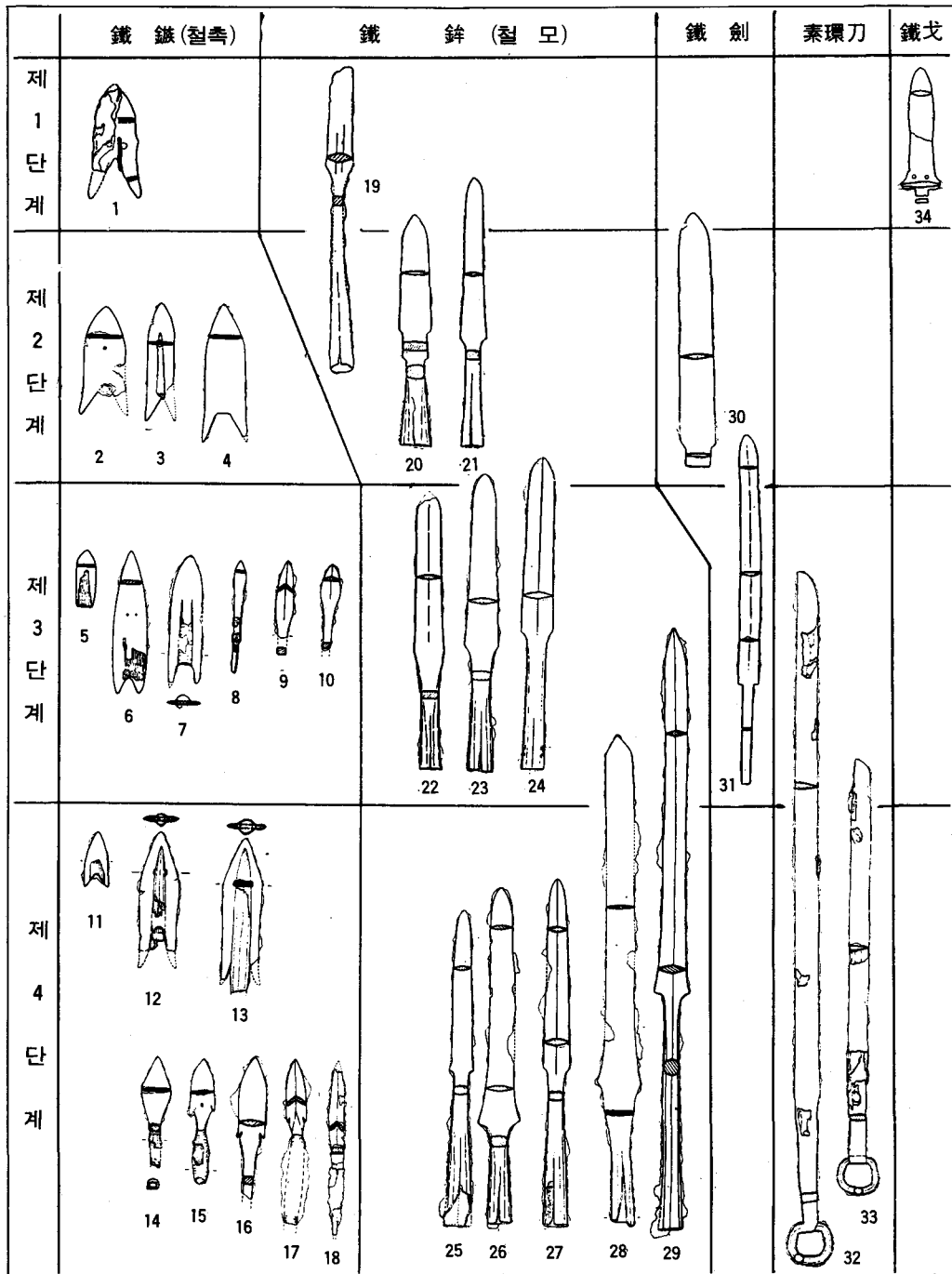
이상 각 기종별로 살펴본 原三國時代鐵製武器의 變化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다.

第1段階: 부분적으로 철촉과 같은 독자적인 武器가 나타나지만 義昌茶戶里 1號 出土 鐵鉞, 慶州九政里出土 環頭大刀와 같이 外來의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단계이다. 鐵鏃은 첫째 형식의 無莖式鐵鏃이 주류를 이루고, 鐵戈는 이 단계에 한정되어 출토된다.

第2段階: 鐵製品의 生産이 本格化 되면서 독자적인 武器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둘째 형식의 無莖式鐵鏃이 주류를 이루며 有莖式鐵鏃은 나타나지 않는다. 鐵劍은 短莖式 밖에 없다. 1段柄式의 철모는 直角關을 가지며 鋒部: 跗部가 3:2에 가까워지고 2段柄式의 鐵鉞는 이 단계에서만 출토된다.

第3段階: 無莖式鐵鏃은 세째형식이 주류를 이루며 有莖式鐵鏃은 처음으로 나타난다. 철모의 경우 2段柄式에서 變化한 台狀關의 철모가 주류를 이루지만 모두 길이 40cm 이하로 長大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鐵劍은 長莖式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의 전반에만 보이고 후반에는 사라지게 된다.

第4段階: 有莖式鐵鏃이 주류를 이루고 세째형식의 無莖式鐵鏃이 사용된다. 또한 釜山老圃洞31號墓와 같이 鐵鏃이 多量埋納된다. 鐵鉞의 경우 길이 40cm 이상으로 장대화되면서 實用性이 적은 儀器化된 것이 나타나며 直角關의 鐵鉞는 鋒部: 跗部의 길이비가 1:1에 가까워진다. 鐵劍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環頭大刀가 나타난다.



圖面 5. 原三國 時代 鐵製武器變化

1 : 義昌 茶戶里 11號墓, 19 : 平壤 貞栢洞 採土場 34 : 義昌 茶戶里 1號墓 2, 4, 20, 21, 30 : 金海 良洞里 7號墓
 3 : 金海 良洞里 6號墓 5, 8, 22, 31 : 金海 良洞里 4號墓 6 : 金海 良洞里 5號墓 7 : 釜山 老圃洞 7號墓
 9, 10 : 釜山 老圃洞 6號墓 23 : 釜山 老圃洞 24號墓 24 : 釜山 老圃洞 35號墓
 11, 25, 26 : 釜山 老圃洞 16號墓 12, 13, 32, 33 : 釜山 老圃洞 33號墓
 14, 15, 18, 28 : 釜山 老圃洞 31號墓 16, 17 : 釜山 老圃洞 17號墓 27, 29 : 釜山 老圃洞 21號墓

〈註〉

- 1) 다음의 表에 인용된 原三國時代 墳墓遺蹟의 發掘調査報告는 다음과 같다. 本文中 인용된 各 墳墓出土의 鐵製武器는 다음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 ① 李健茂 外, 「義昌 茶戸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第1輯, 1989. 7.
 - ② 한영희 외, 「김해양동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89.
 - ③ 鄭永和 外, 「陝川苧浦古墳A發掘調査報告書」, 嶺南大學校博物館學術調査報告 第8冊, 1987.
 - ④ 尹炳鏞, 「釜山老圃洞古墳」, 釜山直轄市立博物館調査報告書 第2冊, 1985.
 - ⑤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12輯, 1988.
 - ⑥ 尹炳鏞·宋桂鉉, 「釜山老圃洞遺蹟Ⅱ」, 釜山直轄市立博物館調査報告書 第3冊, 1988.
 - ⑦ 金東鎬, 「固城松川里של石石棺墓」, 東亞大學校博物館古墳調査報告 第三冊, 1977.
 - ⑧ 이건주·김홍주, 「경주 황성동 유적발굴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1985.
 - ⑨ 金元龍, 「慶州九政里金石並用期遺蹟에 대하여」, 「歷史學報」, 1962.
 - ⑩ 朝鮮總督府, 「慶州郡外東面入室里의 遺蹟と 發見의 遺物」, 大正十一年度 古墳調査報告 第二冊, 1925.
 - ⑪ 李健茂, 「湖林博物館所藏 鐵戈」, 「考古學誌」第1輯, 1989.
- 2) 崔鍾圭, 「慶州朝陽洞遺蹟發掘調査概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第35卷 8號, 1983.
- 3) 林孝澤, 「昌原道溪洞古墳發掘調査」, 「嶺南考古學」4, 1987.
- 4) 李清圭, 「濟州島地方의 初期鐵器性格과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韓國考古學報」17·18, 1985.
- 5) 裴基同, 「提原陽坪里A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忠州湄水沒地區文化遺蹟學術調査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I), 1984.
- 6) 元永煥·崔福圭, 「屯內」, 江原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書 第1輯, 1984.
- 7) 日本의 경우 그 변화는 三角形→弧形→梯形으로 파악되고 있다.
大村直, 「彌生時代における鐵鑊의 變遷とその評價」, 「考古學研究」第30卷 3號, 1983.
- 8) 報告書에는 拖舵로 보고되어 있으나 필자가 실견한 바 斷面 V形鐵鑊이었다.
山中英彦 外, 「鄉屋遺蹟」, 北九州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44輯, 1986.

農·工具

이 상 을 (부산대 박물관)

原三國時代의 문화상 특징중의 하나는 製鐵의 발달로 말미암아 鐵器生産이 本格化하면서 종래의 石製 또는 木製道具가 鐵製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鐵의 사용에 따른 생활용품·農具의 변화는 農耕社會의 발전을 가져오고, 나아가 階級社會로의 전개를 촉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鐵製農·工具가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는 靑銅器時代末期(기원전 3세기)까지 소급되나 유적의 분포상 대부분이 한반도 북부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공반유물중에는 明刀錢을 비롯한 중국의 유물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半島內의 자체적인 생산유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慈江道 龍淵洞 出土의 鐵斧·鐵鍊, 平北 細竹理 및 咸北 虎谷유

적 제VI기의 鐵鎌·반달형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들은 모두 중국제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의 중국 동북지방에 위치하던 燕나라(B.C.323~222)의 제품일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北方으로부터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인 변혁-衛滿朝鮮의 출발과 이에 따른 準王일파의 南下, 후기의 漢帝國에 의한 樂浪郡설치 등-은 점차로 반도内の 독자적인 鐵器生産의 계기가 되었고, 이에 편승하여 農·工具도 原三國時代로 접어들면 鐵製化는 물론 다종다양하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

原三國時代에 사용한 農·工具로서는 鐵鎌·철삽날·괘이형 철기(따비)¹⁾·鐵斧·鐵鑿·刀子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집게·망치·釘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출토예가 적어 비교 관찰이 힘들다.

따라서 上記의 유물중 어느정도 관찰이 가능한 유물만을 간추려서 그 특징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鐵鎌은 수확용 農具로서 靑銅器時代末期까지 잔존하던 半月形石刀를 대신한 것이다. 靑銅器時代末期가 되면 半月形石刀도 북방의 철기과금의 영향으로 일부 鐵製化되나 原三國時代에는 鐵鎌의 출현과 더불어 사라지게 된다. 형태상 基部의 끝부분을 두드려 말아올린 형식(고착式)이 일반적이거나 基部의 끝을 직접 木柄에 끼우는 형식(끼움式)도 있는데, 끼움式인 경우 基部는 끝부분이 木柄에 끼우기 용이하도록 段이 져 있다. 그러나 어느 형태든지 이른 시기의 鐵鎌은 鎌身의 最大幅이 基部에 가까운 부위에 위치하며 시간이 갈수록 鐵身幅이 일정하거나 鎌身上方의 굽은 부분에 最大幅을 가지는 예가 늘어난다. 金海良洞里古墳²⁾에서는 고착式과 끼움式이 모두 출토되어 상호비교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데, 공반유물로 미루어 보면 끼움式이 기원 2세기전반경, 고착式은 2세기후반~3세기로서 끼움式이 선행하는 형식이다.

철삽날은 최근까지 농촌에서 사용되던 U字狀의 가래先金具와 모양이 비슷하여 주로 耕鋤用具로서 인식되고 있는 도구이다. 철삽날이 출토되는 유적으로는 荷川里F地區 1號住居址³⁾ 雲城里土城⁴⁾, 雲城가말피 2號구들무덤, 증강군 토성리 유적⁵⁾, 夢村土城⁷⁾ 등이 있는데, 형태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U字狀을 띠고 있다. 그런데 철삽날의 내측에 木製柄을 끼우는 부분은 날 내면 전체에 홈이 나 있는 것(운성리 토성, 운성리 가말피 2호구들무덤, 몽촌 토성)과 양쪽 단 일부만 나 있는 것(하천리F지구 1호주거지, 토성리유적)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날 형태의 변화와 아울러 시기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 다만 한반도에서 철삽날이 최초로 출현하는 시기는 토성리유적의 경우 五銖錢과 공반되는 것으로 미루어 기원 1세기 이후부터일 것으로 보아지며 날 내면 전체에 홈이 난 예가 삼국시대의 철삽날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 이 형식이 일부에만 홈이 난 예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발달된 형식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原三國時代에 해당하는 차후의 자료증가를 기대한다.

괘이형철기(따비)는 장방형 철판의 일부를 접어 鑿部를 만들고 이를 반대쪽으로 휘어 身部와 둔각을 지게끔 만든 것이다. 용도는 현재의 괘이와 같이 掘地具 또는 제초시 사용한 農具

의 일종으로 보아진다. 지금까지 쟁이형철기가 알려진 유적으로는 진북 대평리⁸⁾, 울주하대⁹⁾ 및 의창 다호리 유적¹⁰⁾ 등의 몇 예만 있을 뿐 출토예가 적은데다, 그나마도 다호리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지표채집품이기 때문에 공반유물을 통한 비교연구에 어려운 점이 많다.

다호리 1호분에서는 2점의 쟁이형철기에 木柄이 꽂힌 상태로 출토되어 그 착장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날의 파손으로 인하여 身部の 全形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보고자들에 의하면 잔존하는 身部の 형태상 先端部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점에 유의하여 鐵鉞와 같이 先端部가 뾰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하여, 형태상 同一한 用途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하대 및 대평리출토품은 先端이 面으로 처리되어 있어 유의된다. 쟁이형철기의 정확한 用途가 불확실한 감은 없지 않으나 掘地具 또는 제초의 기능으로 본다면, 다호리의 2例 역시 날 先端의 형태상 일률적으로 뾰족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面을 가진 것도 있었을 것이다.

鐵斧는 製作法에 따라 크게 鍛造鐵斧와 鑄造鐵斧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鍛造鐵斧는 鑄型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두드려 제작한 것으로서, 原三國期는 물론 이후의 三國時代에 이르면 鐵斧의 主流를 占할 만큼 많이 제작·사용된 工具이다. 原三國期の 鍛造鐵斧는 鋤部和 刃部の 형태를 중심으로 대략 3형식으로 세분된다. 제1式은 身部の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우며 鋤部는 단면 타원형을 띠는 것으로서 제원 양평리2호분¹¹⁾, 도화리적석총¹²⁾, 노포동 31·35호분¹³⁾ 출토품등이 여기에 속한다. 鋤部和 身部の 경계에 段이 있는 것(有肩式)과 없는 것(無肩式)으로 세분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有肩式이 우세하고 鋤部の 斷面형태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한다. 제Ⅱ式은 鋤部和 刃部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刃部の 幅이 넓어진 것으로서, 鋤部斷面은 타원형 또는 角이 진 타원형을 띠고 있는 형태이다. 모두 有肩式이다. 제원 양평리2호분, 도화리적석총, 노포동16호분, 시중군 풍청리33호분¹⁴⁾ 출토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Ⅲ式은 刃部를 제외한 身部の 평면형태 및 鋤金部斷面이 말각장방형, 장방형을 띠며 鋤接이 치밀하여 鑄造鐵斧와 비슷하다.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는 다호리 1호분 출토품은 身部가 날쪽으로 향하며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다. 刃斧는 타정으로 인하여 약간 벌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刃部の 발달이 현저해진다. 김해 양동리고분, 몽촌토성 출토품 등이 있다. 이상의 3型式이외에도 각 형식의 중간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 각 형식의 공반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이 시기의 鍛造鐵斧에 대한 형식구분 및 先行형식의 파악은 차후 보다 치밀한 검토를 요한다. 다음으로 鑄造鐵斧는 처음부터 鑄型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鍛造鐵斧와 더불어 原三國時代는 물론 그 前後시기까지 비교적 폭넓게 사용된 工具이다. 鑄造鐵斧의 기능 및 용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일상도구說’ 이외에도 ‘非실용품說’, ‘화폐說’, ‘鐵소재說’ 등을 비롯하여 최근의 ‘장송행위에 실용되는 특수용품說’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이견이 많은 유물中の 하나이기도 하다. 原三國期에 출토되는 鑄造鐵斧는 형태상 자귀形鐵斧와 梯形斧의 2형태로 구분된다. 이 중 자귀形鐵斧는 2個 1組의 鑄型中 한쪽에만 陰刻된 소위 ‘單合範’으로 구조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서, 身側緣 또는 身中央에 돌기

된 隆線의 有無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아지는 하천리F지구 1호주거지 출토품은 身部の 幅이 일정하고 鑿部斷面도 장방형狀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다소 시기가 내려오는 노포동, 예안리¹⁵⁾ 대심리¹⁶⁾ 출토품 등의 경우 身部幅이 좁아지거나 鑿部斷面이 강한 梯形狀을 띠고 있어 자귀形鐵斧의 형태변화를 추측케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귀形鐵斧의 공통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梯形斧는 양쪽이 모두 음각된 소위 ‘雙合範’으로 鑄造된 것으로서, 鑿部端에 들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梯形狀이나 초기의 것은 다소 장방형狀을 띠며, 시간이 갈수록 刃部가 현저히 발달하여 鍛造鐵斧 II式의 변화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原三國時代의 鐵斧 형태 변화를 정리하여 보면 圖面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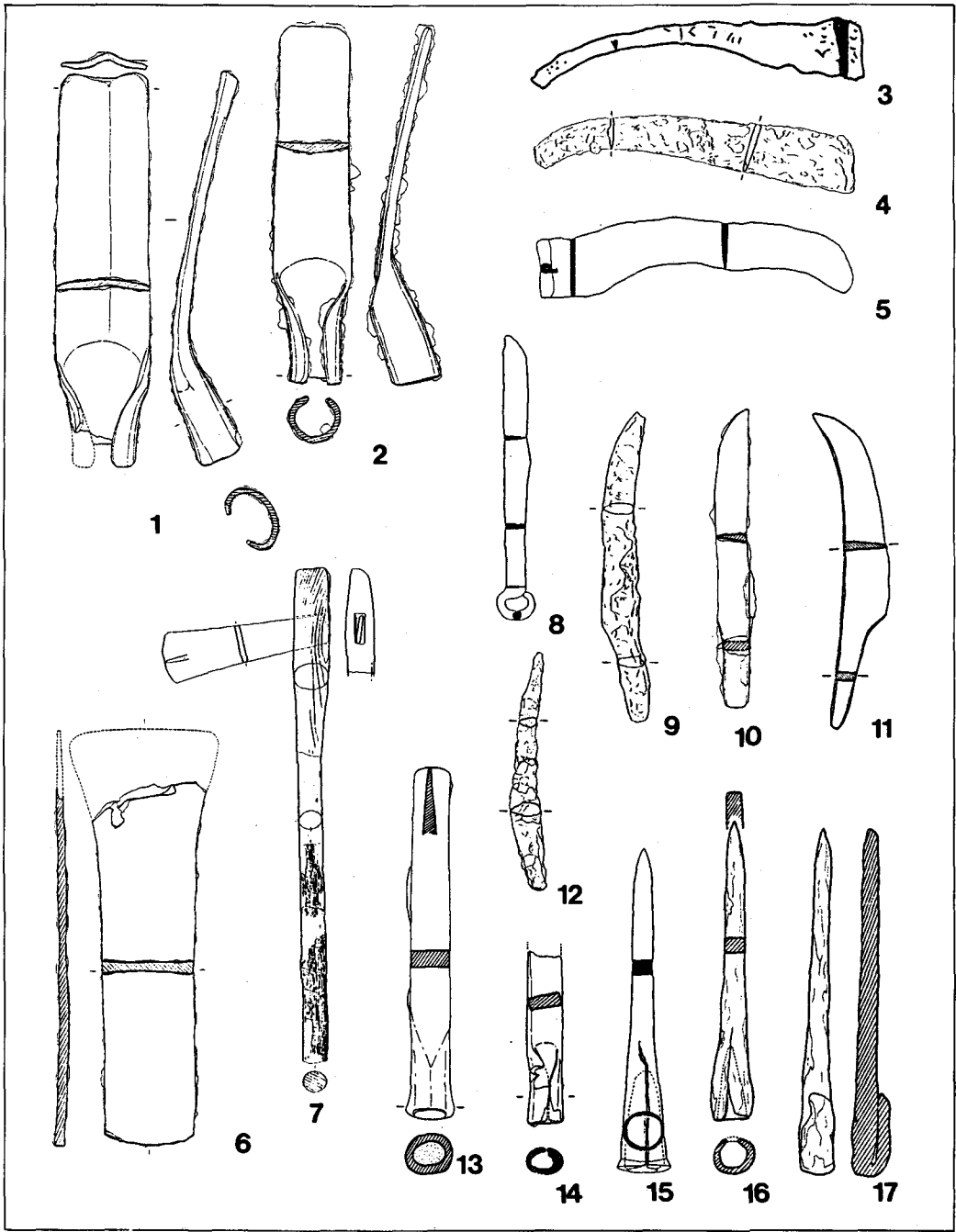
이외에도 鐵斧로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최근 다호리유적에서 집중 출토한 바 있는 板狀鐵斧이다. 우리나라에서 板狀鐵斧가 출토된 예로서는 월성군 입실리¹⁷⁾, 경주 구정동¹⁸⁾, 조양동38호분¹⁹⁾, 창원 삼동동 3호석관묘²⁰⁾, 서산 대산리2호분²¹⁾ 등 다수 알려진 바 있으며 북한지역에도 영흥 소라리를 비롯한 몇 예가 보고된 바 있으나 형태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호리의 板狀鐵斧는 木柄에 착장되어 도끼 또는 ‘ㄱ’字狀의 자루에 묶여 자귀의 역할을 한 것이 있는 반면, 木柄없이 出土한 예도 많으며 이 가운데 刃部에 날이 없이 몽툭하거나 아주 얇은 것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鐵소재로서의 鐵斧 또는 鐵鋌의 역할을 한 것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鐵鏃은 靑銅器時代의 柱狀片刃石斧에 상응하는 工具이다. 제원 양평리2호적석총, 다호리4호분²²⁾, 용담동고분²³⁾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형태상 (長)方狀의 身部先端에 蛤刃狀의 兩刃 또는 외날을 세웠으며 鑿部가 있는 예가 일반적이거나 용담동고분 출토품과 같이 鑿部가 없는 예도 있다. 原三國時代 초기에 해당하는 中島1호주거지²⁴⁾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비교적 일찍부터 鐵製化되어 공구로 사용된 것 같다. 中島1호주거지 출토품은 형태상 구조철부와 유사하다.

刀子는 일반적으로 護身用武器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萬能工作具’로서 특히 細部加工시에 애용되었던 공구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原三國時代는 물론 三國時代에도 각 유적에서 폭넓게 출토하여 공구中 숫적으로 가장 많다. 刀身의 刃區는 대부분 명확하나 背區는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도 많으며 柄部先端으로 갈수록 幅을 좁혀 木柄 또는 骨製柄에 착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원 양평리 2호적석총에서는 소위 ‘環頭刀子’가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이것은 靑銅器末期인 平北 細竹里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고, 또한 洛陽燒溝漢墓를 비롯한 中國의 漢代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그 계보를 짐작케 한다.

(註)

- 1) ‘파비’는 제초나 발경작시 사용하는 도구로서 쟁기보다 약간 작고 보습이 좁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형태상 쟁기형철기와 차이는 있으나 쟁기형철기의 기능상 파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여기에서는 기능



圖面 7. 原三國時代 各種의 鐵製 農·工具

1·2 괭이형철기(1:진북 대평리, 2:울주 하대) 3~5 철검(3:운성리 가말피 3호분, 4:둔내 3호주거지, 5:제원 양평리 2호적석총) 6·7 관상철부(6:진북 대평리, 7:의창 다호리 1호분) 8~12 도자(8:제원 양평리 2호적석총, 9:둔내 1호주거지, 10:노포동 31호분, 11:곽지배총, 12:중도 1호 주거지) 13~17 철창(13:저포 A지구 42호분, 14:김해 양동 4호분, 15:제원 양평리 2호적석총, 16·17:용담동 고분)

을 중시하여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 2) 한영희 외, 「김해양동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 1989.
- 3) 尹容鎮, 「中原荷川里F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댁 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Ⅱ), 1984.
- 4) 「조선유적유물도감」 제2권, 1989.
- 5) 리규태, 「은울군 운성리 나무곽무덤과 귀틀무덤」, 「고고학자료집」 제6집, 1983.
- 6) 「압록강 독로강유적 고구려 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3집, 1983.
- 7) 金元龍 外, 「夢村土城」東南地區發掘調查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1988.
- 8) 宋桂鉉, 「慶南鎭北大坪里遺蹟採集鐵器類」, 「伽倻通信」第10號, 1984.
- 9) 註 8)과 同.
- 10) 李健茂 外,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 「考古學誌」第1輯, 1989.
- 11) 裴基同, 「提原陽坪里A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댁 水沒地區文化遺蹟學術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Ⅰ), 1984.
- 12) 崔夢龍 外, 「堤原桃花里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댁 水沒地區文化遺蹟學術調查綜合報告書」考古·古墳分野(Ⅰ), 1984.
- 13)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12輯, 1988.
- 14) 註 6)과 同.
- 15)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Ⅰ」,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8輯, 1985.
- 16) 金元龍 外, 「楊平郡大心里遺蹟發掘調查報告」, 「八堂·昭陽댁 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報告書」, 1974.
- 17) 朝鮮總督府, 「慶州郡外東面入室里的遺蹟と發見の 遺物」, 大正十一年度 古蹟調查報告 第二冊, 1925.
- 18) 金元龍, 「慶州九政里金石並用期遺蹟에 대하여」, 「歷史學報」第1輯, 1962.
- 19) 崔鍾圭, 「瓦質土器의 檢討と意義」, 「古代を考える」34, 1983.
- 20) 安春培, 「昌原三東洞甕棺墓」, 釜山女子大學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1輯, 1984.
- 21) 金永培·韓柄三, 「大山面百濟土壙墓」, 「考古學」第2輯, 1969.
- 22) 鄭永和 外, 「陝川苧浦古墳A地區發掘調查報告書」, 嶺南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 第8冊, 1987.
- 23) 李清圭, 「濟州의 先史遺蹟 地表調查報告」, 濟州道·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 24) 李健茂 外, 「中島Ⅰ」,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查書 第11冊, 1980.

裝身具

우 순 희 (부산대 박물관)

原三國時代는 기원 전후 경부터 서기 300년 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을 말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瓦質土器¹⁾, 三韓土器²⁾ 등으로 불리는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의 裝身具로는 金·銀製는 아직 보이지 않으며, 水晶製·瑪瑙製·琉璃製의 구슬(玉)이 墳墓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는 三國志 魏志 東夷傳 韓傳의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기사와 부합된다.

이 원삼국기의 玉은 그 材料나 모양에 있어서 前代(靑銅器時代)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재료상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에는 靑綠色系의 玉石製品인 天河石⁴⁾이 주로 쓰인 반면에, 원삼국기에는 투명한 빛깔의 水晶, 반투명의 붉은 빛을 띠는 瑪瑙와 전혀 새로운 소재의 琉璃가 쓰인 점이다. 이 중에서도 유리옥의 출현은 유리제작기술의 보급을 의미한다. 즉 종래의 玉石製品인 天河石이나 碧玉 등의 材料는 구하기 곤란하며 제작에 굉장한 기술과 시간을 요하므로 이것을 玉과 유사한 琉璃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옥은 2종류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鉛琉璃로 용점이 낮아 粘土로 만든 鑄型에 의해 曲玉 管玉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다른 하나는 알카리石灰琉璃로써 녹색이나 코발트색銅의 분말을 섞어 발색한 청색계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유리옥의 原材는 中國 前漢이나 樂浪郡에게서 구했을 것으로 보며, 더 자세히는 琉璃製璧을 깨뜨려 녹여서 曲玉이나 管玉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⁴⁾ 한국에 있어서 유리제작의 기술도 漢과의 접촉, 漢郡縣과의 접촉이후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구슬은 義昌 茶戶里 1號墳, 慶州 朝陽洞 38·60號墳, 平壤 貞栢洞 53號墳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므로 늦어도 기원 1세기 경에는 유리제작기술이 보급되었다고 보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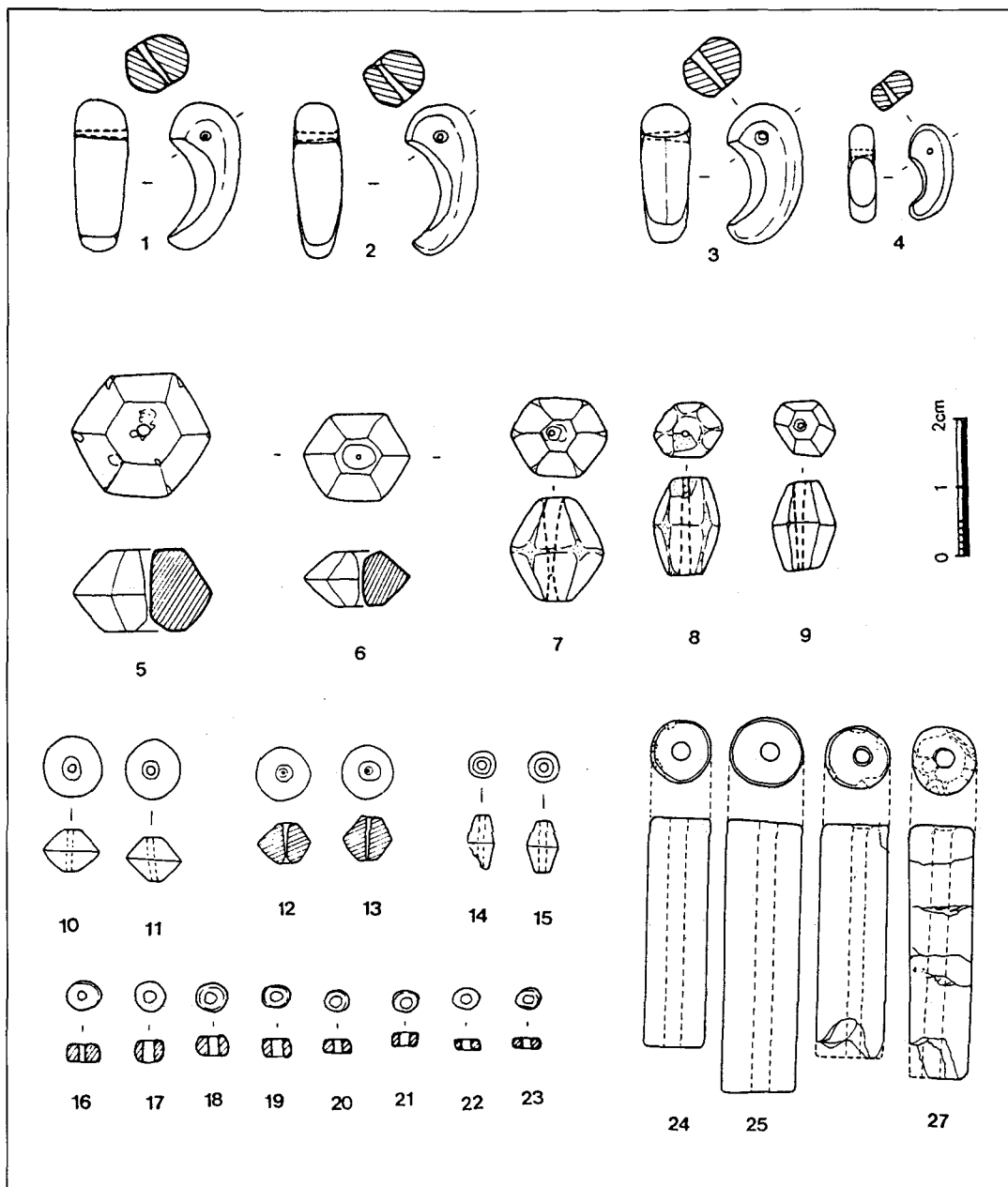
원삼국기의 玉製品은 그 형태에 있어서도 청동기시대와 뚜렷이 구별된다. 청동기와 공반되는 玉製品의 형태는 半圓形 혹은 半球形의 曲玉과 대형의 管玉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 비해 원삼국의 玉製品은 定型化된 콤마형 曲玉과 6면체로 정교하게 다듬은 切子玉과 주산알모양 옥이 출현하며 유리제작기술에 부수되어 小形丸玉이 나타난다. 한국 原三國期에 대응되는 日本 야요이(彌生) 遺蹟의 경우 碧玉製 管玉과 硬玉製 曲玉이 가장 보편적으로 출토되며, 粘土로 만든 曲玉의 鑄型도 출토되고 있다.

보통 瓦質土器와 공반되는 유적에서는 水晶製의 曲玉, 切子玉, 주산알모양옥과 琥珀製 切子玉, 曲玉, 주산알모양옥, 그리고 琉璃製의 小形丸玉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이에 비해 古墳時代에 들어가면 유리제소형환옥은 계속 사용되나 曲玉은 硬玉製品이 主流를 이르게 된다. 硬玉은 翡翠의 일종으로 버마·일본은 세계적인 경옥산출지로서, 일본의 경우 彌生時代부터 曲玉의 재료로 쓰였으나 한국의 경우 고분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硬玉이 쓰이게 되었다. 이 硬玉은 최근의 연구결과 아직 國內에서 정확한 硬玉產地는 밝힐 수 없으나, 螢光X線分析의 결과 일본출토경옥과 성분이 다르므로 韓國産일 가능성이 있음을 타진하고 있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原三國期の 玉은 그 재료면에 있어서 水晶·琥珀·琉璃로서 前時代와 크게 다르다. 琉璃는 뒤에 오는 古墳時代의 주된 裝身具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 유리제작의 시작은 원삼국시대이다.

다음 형태상으로도 보면 이 시기는 古墳時代에 盛行하게 되는 曲玉이 청동기시대의 半圓形·半球形에서 定型化된 콤마형 曲玉의 형태를 비로소 띠게 되는데, 이 모양은 古墳期の 硬玉製 曲玉의 형태와 직접 연결된다. 또한 6면체로 정교하게 다듬은 切子玉이 새로운 형태로서 많이 出土되며 유리제작기술에 따라 小形의 丸玉이 제작된다.

이들 원삼국시대 玉의 用途는 그 出土狀態로는 정확히 알 수 있는 例가 없으므로 단언하기 어려



圖面 8. 原三國時代 각종 玉類(縮尺:實大)

1~4 곡옥(1·2:노포동 8호, 3·4:노포동 11호)

5~9 철자옥(5·6:노포동 45호, 7~9:노포동 4호)

10~15 주산알모양옥(10·11·14·15:노포동 44호, 12·13:노포동 5호)

16~23 소형환옥(노포동 4호)

24~27 관옥(삼동동 1호 석판묘)

운 점이 있으나, 앞에서 인용한 東夷傳의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의 기록으로 보아 옷에 꿰메어 장식했거나 목걸이·귀걸이로 사용했을 것이다. 일본 福岡縣 立岩 29號甕棺墓에서는 琉璃製 管玉 55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띠모양으로 배열하여 頭部에 둘러 장식했던 것으로 복원되었다.⁷⁾

앞으로 원삼국시대의 유적에서 그 출토상태가 양호한 玉製品이 출토되어 그 用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註〉

- 1) 申敬澈, 「釜山慶南出土瓦質土器」, 『韓國考古學報』13, 1982.
- 2) 武末純一, 「慶尚道の '瓦質土器' と '古式陶質土器' - 三韓土器の提唱 -」, 『古文化談叢』第15集, 1985.
- 3) 李仁淑, 「韓國先史曲玉에 關한 小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I, 1987, 一志社, p. 361 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천하석의 산지로 함북 성진, 함남 단천, 경기 안양, 충북 단양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서울 근교 관악산 채석장에서 확인된 바도 있다고 한다.
- 4) 岡崎敬, 「8章 結語」, 『立岩遺跡』, 1977, 河出書房新社.
- 5) 李健茂 外,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第1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9. 7.
- 6) 崔恩珠, 「韓國曲玉의 研究」, 『宗實史學』第1輯, 1986.
- 7) 藤田等 註 4)의 前掲書. 「5. 裝身具」